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저널

Vol.6 June. 2018

발행

2018년 6월 30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e.kr

기획

박혜은

디자인 및 편집

김성희 · 오병찬 · 방재성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제작 · 인쇄

삼성애드피아

CONTENTS

Issue

002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정 석 교수

Review

010 예술이 농촌을 살린다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 신지훈 교수

018 이토 도요의 공간적 사유를 통해 본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한태권 교수

Level up : 주요 컨설팅

028 공주시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색채디자인 공주시

030 서산시 음암 해오름 문화센터 서산시

032 계룡시 지하차도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계룡시

034 태안군 환동공원 조성사업 태안군

036 태안군 어린이10호공원 조성사업 태안군

038 부여군 백제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충청남도교육청

Team : 서천군

042 마량진 동백정 마을 주민참여 경관개선사업 박영순 팀장

Focus on : 센터 정책연구 및 소식

048 2017년도 정책연구 성과

054 2018년도 정책연구 소개

055 센터소식

국내 정책동향

064 중앙부처

079 광역지방자치단체

099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공동주택에서 공동체주택으로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_정 석 교수

'공유'가 트렌드인 시대에 살고 있다. 파리의 '벨리브', 창원시 '누비자', 대전시 '타슈', 고양시 '피프틴', 서울시 '따릉이'처럼 대여소 어디서든 빌려 쓰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 운영사례가 늘고 있고, '쏘카'와 '오토리브' 같은 공유자동차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주차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값비싼 자동차를 사서 유지관리 비용 부담하기보다 공유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유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공유자동차 제도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지 모른다.



▲ 서울 마포구 상수동 '프로젝트 하다'의 밤시간

‘공유’는 말 그대로 모자란 것과 넘치는 것을 서로 잇고 나누는 것이다. 누구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따로 마련해서 쓸 수 있지만, 이웃과 함께 공유할 때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하다’ 사례는 공유의 놀라운 힘을 잘 보여준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프로젝트 하다’는 매일 저녁이면 번신을 한다. 낮에는 디자이너들의 스튜디오로 쓰이다가 밤에는 다양한 용도의 식당이나 카페로 사용된다. 요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파는 사람들이 다르고, 가게 이름도 바뀐다. 말하자면 하나의 공간을 여럿이 다양한 시간대로 나누어 공유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다.

‘공유’는 교통수단의 공유, 사무실과 가게의 공유, 그리고 물건의 공유 차원을 넘어 ‘주거공간’의 공유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체주택’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주거공간의 공유라는 새로운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돈과 여유가 넉넉하다면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탓에 토지자원이 부족한 도시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산다는 건 이루기 어려운 꿈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주택을 짓고 산다. 그런데 공동주택 대신 공동체주택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동주택과 공동체주택, 뭐가 다를까?

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구조로, 주인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다. 옛날처럼 단독주택 안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면서 마당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도 있고, 요즘처럼 각각 독립된 가구들로 구성된 빌라형 다가구주택도 있다. 시장 공간, 총리 공간 같은 ‘공관’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아파트다. 아파트 말고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여럿이 함께 사는 기숙사도 물론 공동주택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경계는 무엇일까?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가르는 기준은 층수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른다. 아파트는 다시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뉜다. 그 경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과거에는 5~6층까지 있는 아파트를 저층아파트, 7~12층을 중층아파트, 15층 이상을 고층아파트로 구분했는데, 요즘은 초고층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는 오히려 저층아파트처럼 보인다.

잠실주공아파트 단지가 그렇다. 예전에는 5층짜리였던 1~4단지와 달리 15층까지 있던 5단지 아파트를 ‘잠실고층아파트’라고 불렀다. 당시의 저층아파트들은 이미 예전에 30층 내외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되어 이름까지 잠실엘스(1단지), 잠실리센츠(2단지), 잠실트리지움(3단지), 레이크팰리스(4단지)로 바뀌었다. 반면 고층아파트로 불리던 5단지 아파트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주변 단지들이 모두 고층화되어서인지 15층 규모가 오히려 아담해 보이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고층아파트란 말이 무색해졌다.



▲ 소행주1호 공유공간 '씨실'

4층 이하 공동주택은 총면적을 기준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나뉜다. 건축 총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그보다 작으면 다세대주택으로 불린다. 공동주택의 세계는 이렇게 넓고도 다채롭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과연 '공동'은 있을까? 공동은 없고 '주택'만 잔뜩 모여 있는 건 아닐까? 다세대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아파트 단지든,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동 이용 시설은 어디에나 마련되어 있다. 놀이터도 있고, 마을회관과 관리사무소도 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도 있고,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해놓은 정자나 벤치 같은 휴게시설도 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은 각 세대의 개인 공간만 머무르며 삶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주택의 등장은 이처럼 개인 공간에 함몰되지 말고 공동의 공간, 즉 '공유공간'을 더 늘려서 주민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채워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공동체주택의 대표적 사례로 마포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를

꼽을 수 있다. 소행주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준말이다. 공동체주택 소행주를 짓기 위해 아홉 가구의 주민들은 서로 소통하며 1년간량을 준비했다. 각자가 또 함께 꿈꾸는 집은 어떤 곳인지, 공유공간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만들고 어떻게 쓸 것인지, 자기가 거주할 집의 방 배치와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함께 살기로 한 주민 모두가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살아갈 공동체주택을 설계하고 지은 것이다. 아홉 가구의 주민들은 부동산 시장에 나온 상품 가운데 형편에 맞는 집을 골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집을 처음부터 같이 기획하고 설계하여 지은 것이다.

2012년 5월에 완공된 공동체주택 '소행주 1호'는 여느 공동주택과도 확연하게 다르다. 건물을 들어 올린 필로티 형태의 1층 공간은 공유공간이면서 주차장으로 쓰인다. 자전거 보관대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다. 차가 빠져나간 낮에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도 쓰인다. 2층도 역시 공유공간이다. 이곳에 마련된 '씨실'에는 주방이 있는데, 주민들이 모여 음식도 나누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한다. 인근에 사는 주민도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2층 일부는 공방과 방과 후 교실로 사용되고, 마을기업에 임대하기도 한다. 소행주에는 일반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에는 없는 여러 공유공간이 실속 있게 갖춰져 있다.

각 세대의 집 안 공간 설계도 흥미롭다. 남매를 자녀로 둔 부부가 사는 301호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 아이들의 소망을 실현한 비밀아지트가 바로 그것이다. 아이들의 방 아래에 각각 작은 공간을 두어, 방바닥에 덮인 작은 문을 열면 비밀아지트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드러난다. 남매는 각자의 아지트 사이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평소 서로 소통하다가 다투기라도 하면 구멍을 막아버린다고 했다.

한 지붕 아래 아홉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재미난 공동체주택 소행주를 짓는 비용은 부동산 시장에서 각자 집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고 한다. 이웃과 서로 나누는 삶을 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하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 소행주 같은 공동체주택이 마을 안팎으로 퍼지고 있다. 성미산 마을 안에도 이미 5호까지 지어졌고, 부천과 과천, 안양, 용인, 대전, 인천에서도 소행주라는 이름의 공동체주택이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은평구 불광동에는 '구름정원주택'이란 공동체주택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인 '하우징쿵'의 설립자이자 구름정원주택의 입주자이기도 한 하기홍 선생과 여덟 가구 주민들이 함께 지은 공동체주택이다. 150여 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어 여덟 가구가 함께 살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상가로 임대하고 수익은 함께 나눈다. 입주자들 나이가 50대 중반 가까이 되어 실버형 공동체주택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우징쿵은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오시리가름'이란 이름의 협동조합주택을 2016년에 완공했다. 2천 평이 넘는 대지에 단독주택 16개 동을 지었고, 조합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과 커뮤니티시설도 각각 1동씩 지었다. 하우징쿵은 제주도 조천읍 와산리에 타운하우스형 공동체주택 28세대를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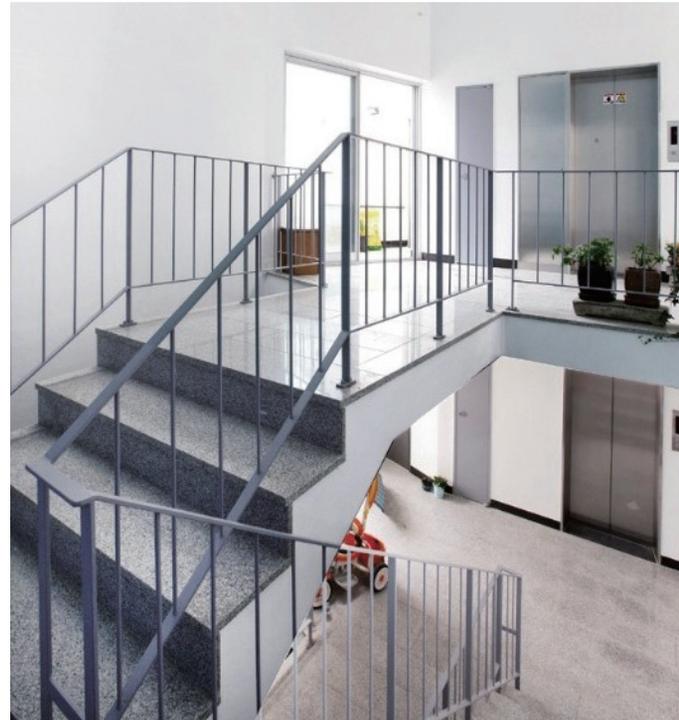
▲ 구름정원주택-4층 마을회관



▲ 구름정원주택-1층 협동조합카페 구름정원



▲ 구름정원주택-외부



▲ 구름정원주택-계단실



▲ 부산 일오집

▼ 제주 오시리가름 협동조합주택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는 '일오집'이란 이름의 공동체주택이 있다.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집을 함께 지어보자는 뜻에서 의기투합했다. 총 14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공유공간 한 채를 더해서 '일오집(14+1=15)'이 되었다. 내 것을 조금씩만 비우고 내어놓는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담아 지은 집이다. 각 세대 주민들이 조금씩 내어놓은 공간으로 작은 풀장도 만들고 휴마당과 도서관, 문화공간도 만들었다. 나눔으로써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멋진 공동체주택이다.

서울 SH공사는 민간 소유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에 이를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다. SH공사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개별 세대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아닌, 이 집을 함께 쓰고자 하는 공동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공동체에 최대 40년까지 장기대여를 하면, 공동체가 자기들이 쓸 용도에 맞게 집을 리모델링한 뒤 거주하게 된다. 성북구 삼선동에 연극과 뮤지컬 등 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배우의 집'을 시작으로,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인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함께 연습하고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공동체주택이 다목적 융합공간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 6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열어 시민들의 공동체주택에 대한 상담과 지원 및 민관협력 방식의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제 '공동주택'의 시대에서 '공동체주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또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체주택의 꿈을 이루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시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주택 안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 삶의 풍요로움을 울타리 너머까지 전파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공동체주택'이 아닌 '공동체마을'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

사진출처

- 1) 상수동 '프로젝트하다' <http://hankookilbo.com/m/v/47e372e238e74755a0e67a537ae13082>
- 2) 소행주1호 공유공간 '씨실'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2926>
- 3) 구름정원주택 <https://blog.naver.com/jutek/220352364384>
- 4) 부산 일오집 <https://blog.naver.com/lovelysong/187012392>
- 5) 제주 오시리가름 협동조합주택 <https://ko-kr.facebook.com/ateliercom/>



▲ 부산 일오집



▲ 제주 오시리가름 협동조합주택

REVIEW

010 예술이 농촌을 살린다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

신지훈 교수

018 이토 도요(Toyo Ito)의 공간적 사유를 통해 본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Gifu Media Cosmos)

한태권 교수

예술이 농촌을 살린다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신지훈 교수(충남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1. 들어가면서 : 예술과 농촌의 공존

2000년부터 시작된 에치고 츠마리의 대지예술제 아트 트리엔날레는 드물게도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예술제이다. 국내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가 있지만, 언뜻 들으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예술’과 ‘농촌’이라는 두 개념이 만나 지역을 성공적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로 알려져 있다. 대지예술제는 지역의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모티브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도입하여 쓰러져가는 농촌 지역의 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하고도 눈여겨 볼만한 시도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도시 혹은 지역의 ‘재생’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에치고 츠마리의 대지예술제는 가치 있는 지역 자원의 발굴, 창조적 아이디어의 도입,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의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필자가 수년 전에 다녀왔던 대지예술제를 둘러보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옮겨보고자 한다.

2.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의 개요

에치고 츠마리는 일본 니가타현 남단에 있는 도오카마치시와 츠나마치라는 두 지역을 일컫는 말로 총면적은 약 760km²에 달한다. 이곳은 일본 농촌의 전형으로 현대사회가 직면한 농촌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 준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 내에서도 대표적인 인구 과소지역으로 꼽히며,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이농·탈농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역 인구는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일본 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역 자체가 소멸할 위기를 겪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농촌 문제를 그대로 옮겨둔 것처럼 보인다.



▲ 에치고 츠마리 지역의 전형적인 경관인 계단식 경작지

이에 따라, 니가타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회생 프로젝트인 ‘새로운 니가타 창조계획’을 세우고, 예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을 끌어내 교류 인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에치고 츠마리 아트 네클레스 정비구상’을 시작하였다.



▲ 흙의 박물관: 폐교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흙을 재료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 계단식 논: 전통적인 벼농사 풍경을 시로 지은 텍스트와 농사작업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조각을 배치한 작품이다.



▲ 토석류의 모뉴먼트 : 산사태 피해로 쌓인 토석류 퇴적의 흔적을 표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댐과 제방을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출발점이 되어 예술 성과를 전시하는 예술제를 3년마다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지의 예술제'라고 불리는 '에치고 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이다. 즉, 지역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를 예술을 매개로 구체화하고, 매력을 높이고, 세계에 알리며, 지역재생 및 관광 코스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성과를 발표하는 장이다. 예술 작품은 에치고 츠마리 지역의 논과 밭, 생활공간, 폐교, 공가, 댐, 터널, 선로 등의 생산과 사회기반시설, 택지, 지형 등을 활용하여 전시되며, 예술제가 시작된 2000년부터 1천여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고, 참여하는 취락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도 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 꽃피는 츠마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설치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야외 작품이다.



▲ 사토야마현대미술관: 일본의 전통적인 사찰과 신사를 모방한 건축양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의 관람 시작을 알리는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 농무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 시설로, 그 주변은 대지예술제의 다양한 요소가 집약된 야외 미술관이다.



▲ 빈집의 스펙트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을 예술가에게 의뢰하여, 내부에 가위, 못, 식칼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오브제를 매단 설치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3.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의 특징

1) 농촌의 생활문화와 생태, 기반시설을 모티브로 한 예술 작품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에 제출된 작품들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자원인 사토야마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 있다. 사토야마는 마을과 접해 있는 자연 지역이 인간의 영향을 받아 이뤄진 생태계를 이르는 말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경을 가진 장소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사토야마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은 에치고 츠마리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인 계단식 논,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흙이나 꽃, 잣은 폭설로 발생한 산사태로 변화를 겪은 지형과 복구 작업 등이다.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예술 작품도 눈에 띈다. 그리고 독특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현대미술관, 농경문화 마을센터 등 거점 시설을 도입하여 예술 축제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

2) 명망있는 예술가와 지역 주민의 참여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의 조직위원회는 예술을 매개로 경계 없는 협동을 이뤘다. 예술가들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보인 열정은 지역 주민들을 협력자이자 주체적인 참여자로 바꿔 놓았다. 또한, 탈농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들을 미술관이나 전시실, 레스토랑, 숙박시설, 동네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빈집 프로젝트’, 추억을 간직한 채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 서 있지만 주민 고령화로 인해 폐쇄된 학교를 영구 전시 작품으로 리노베이션하거나 방문객들이 식사와 숙박·회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 프로젝트’ 등은 이러한 협동작업의 결과이다.

▼ 산쇼하우스: 마을의 언덕 위에 있는 학교를 개축하여 지역의 자원봉사자나 방문객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강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탈피하는 집 : 빈집을 활용하여 벽, 바닥, 기둥 등을 조각칼로 조각하여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흔적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 창고미술관·폐교가 된 초등학교 교사, 체육관을 작품의 보관과 갤러리를 겸한 창고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였다.



▲ 포템킨 : 마을 입구 쓰레기로 가득했던 공간이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철과 입구의 상징목이 조화를 이룬 공원으로 재조성된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외에도 ‘배의 집’은 역의 플랫폼과 연계하여 도시 교류의 거점 건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포템킨’은 마을 입구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설치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명망 있는 예술가의 협업이라는 대지예술제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작품들은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 배의 집 : 에치고다자와역의역전광장과 연결되어 지역과 도시 교류의 거점이 되는 곳이다.

3)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인적 네트워크

예술제가 시작된 이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참가자도 매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교류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어린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자연과 농촌 마을에 대한 기억을 갖게 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외의 자원봉사자, 전문가, 각계에서 활약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점차 늘고 있는 휴경지를 인근 도시와 협력해 경작을 추진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 키스 앤 굿바이:반원형 창고를 개조한 시설로, 열차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연계를 그린 그림책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4. 나오면서:편견을 극복한 창조적 아이디어

에치고 츠마리 대지예술제의 성공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잘 조직된 아트 디렉터와 같은 전문가와 행정가 조직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대지예술제의 시행 초기에는, 초빙된 아트 디렉터의 의욕과 지역 주민의 무관심은 많은 갈등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아트 디렉터의 의지와 리더십, 예술과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정가의 협상력 등은 모든 갈등을 불식시키고 예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투자의 차원에서 인근 도시지역의 주민과 어린이들로 자원봉사단을 꾸리는 등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면서 대지예술제는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된 농촌과 예술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노력으로 극복하고 창조적 농촌 재생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농촌 마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토 도요(Toyo Ito)의 공간적 사유를 통해 본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Gifu Media Cosm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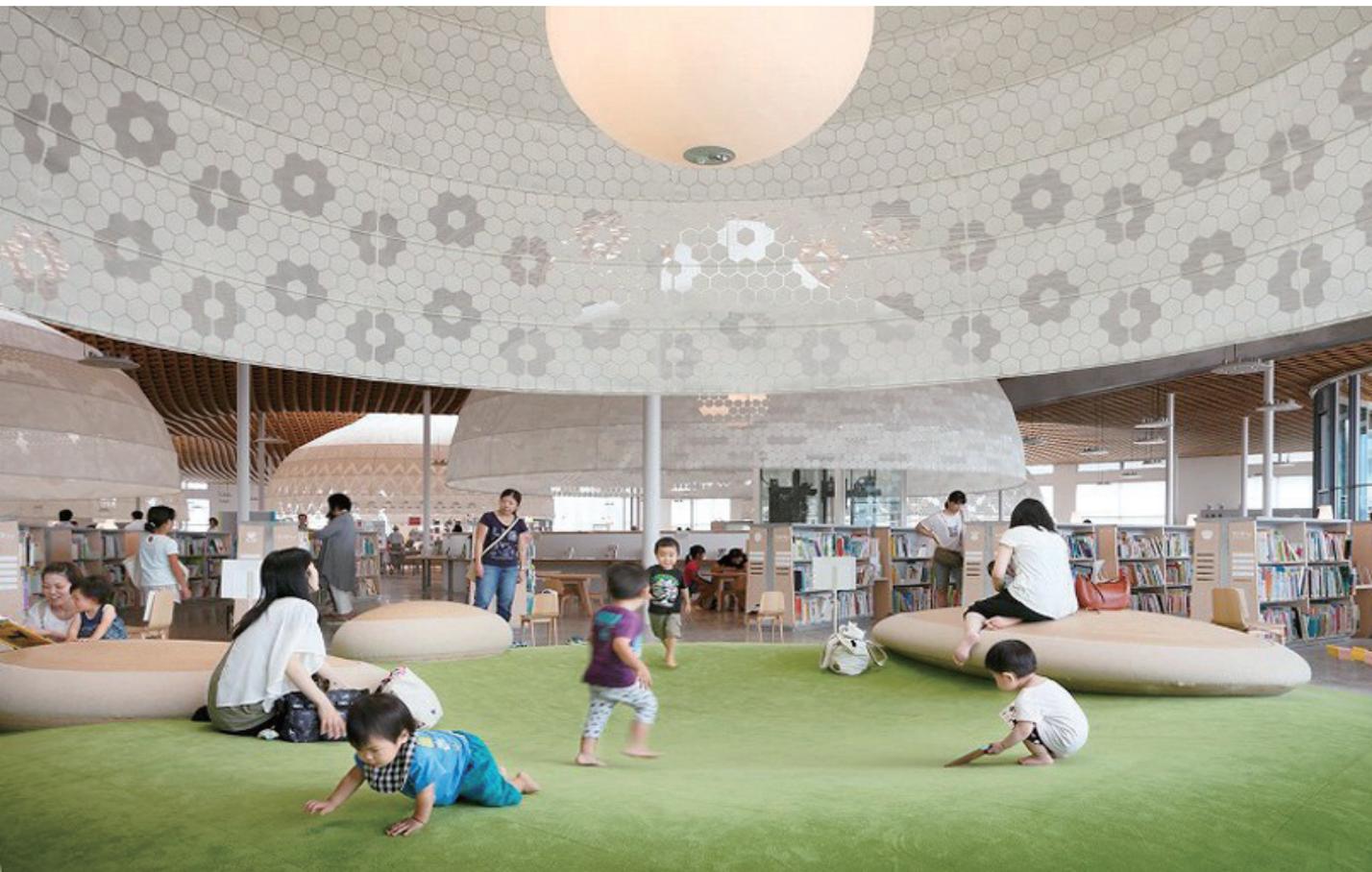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_한태권 교수(충남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 기후미디어 코스모스 야경



복잡하고 다원화된 상황들로 이루어져 불확정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띤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 공간의 경계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내부와 외부, 공(共)과 사(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베아트리스 콜로미냐(Beatriz Colomia)’는 자신의 저서인 「프라이버시와 공공성(Privacy and Publicity)」에서 ‘공과 사는 더 이상 고정된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개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정된 경계를 갖는 오브제로서의 구축적 볼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장(Fields of Relationship)’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직면한 불확정적인 공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찾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공간의 근원적 다양성을 마련하고, 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유연한 공간을 만들려는 공간 디자인적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토 도요(Toyo Ito)’는 이러한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유기적·유동적으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자연적 공간에 관한 끊임없는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일본 현대 건축의 중요한 담론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가이다.

▼ 2층 글로브(Globe) 전경 1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 덕분에 자연의 원리와 규칙을 토대로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의 원리를 단지 자연을 모방한 형태를 만드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년 뉴욕의 MoMA에서 있었던 <A Japanese Constellation>에서 밝힌 자신의 공간적 사유를 정리한 「To Create Architecture that Breathes」란 제목의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토 도요는 자연에 내재한 생성적인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공간 형성에 부여하려 시도한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시대에서도 환경과 융화될 수 있고 다양한 삶을 담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생성적 질서(Generative Order)’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과 같이 살아있는 시스템에 가까운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자연의 요소 중 물(Water)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찾고 있는데, 물은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어서 평소 거울처럼 잔잔하지만, 때론 파도와 같이 거친 흐름을 갖기도 한다.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면, 물에는 파문이 퍼지고, 파문과 파문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그 간섭들이 조직되어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게 된다. 이토 도요는 그의 저서 「On Fluid Architecture」에서 물에 세워진 막대기는 물결에 새로운 파문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생성된 파문은 더욱 복잡한 흐름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른 파문들과 충돌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파문의 중심과 같은 공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발적인 질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파문의 중첩으로 발생한 다중심과 요동에 의해서 공간에 비평형 상태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층 실내 전경



▼ 2층 글로브(Globe) 전경 2



더 나아가 그는, 오늘날의 도시 공간은 끊임없이 생겨나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파문과 소용돌이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공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파문을 만들어 주변 환경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중심은 하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요소가 각각의 중심성을 갖게 됨으로써 형성되는데, 이는 구심점이 없어 무질서한 공간이 아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험을 유도하여 공간과 이용자 간의 새로운 비위계적 질서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토 도요의 공간적 사유는 기동의 관습적 역할에서 탈피한 튜브를 통해 다중심을 형성하고 요동을 일으켜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는 <센다이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2015년에 준공된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Gifu Media Cosmos)>를 통해 그의 공간적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기후현 시내에 위치한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는 2층 규모로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커뮤니티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의 디자인 개념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집들을 하나의 지붕 아래 모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이토 도요가 '글로브(Globe)'라고 일컫는 둥근 지붕들이 매달려있는 2층 열람실 공간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글로브는 대단히 큰 규모의 도서관 전체에 둥근 지붕들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더욱 친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셸터(Shelter)'를 형성하고 있다. 둥근 지붕은 폴리에스터 직물을 고리 형태로 조직하여 책을 읽는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환경을 제공하며, 방사형으로 배치된 서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 사이프러스 합판으로 형성된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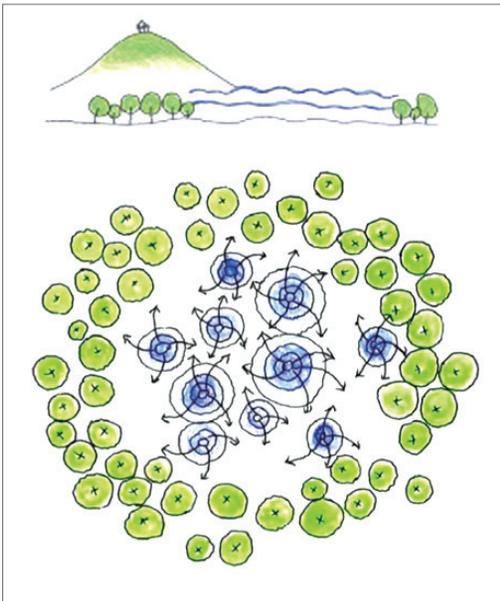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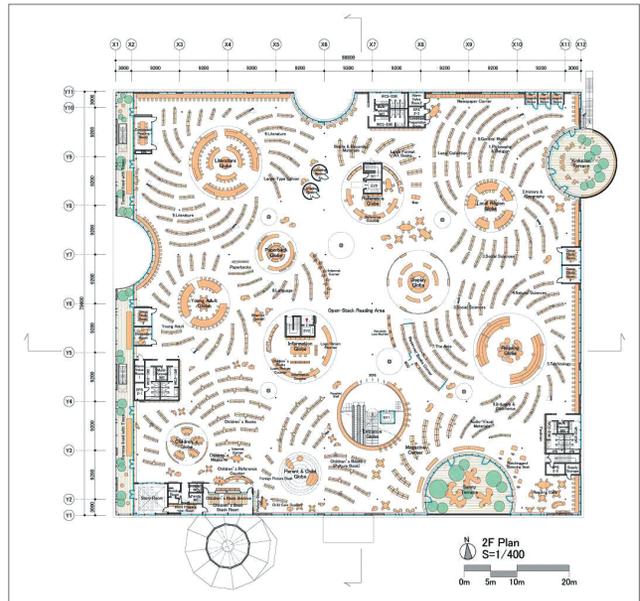
▲ 2층 글로브(Globe) 전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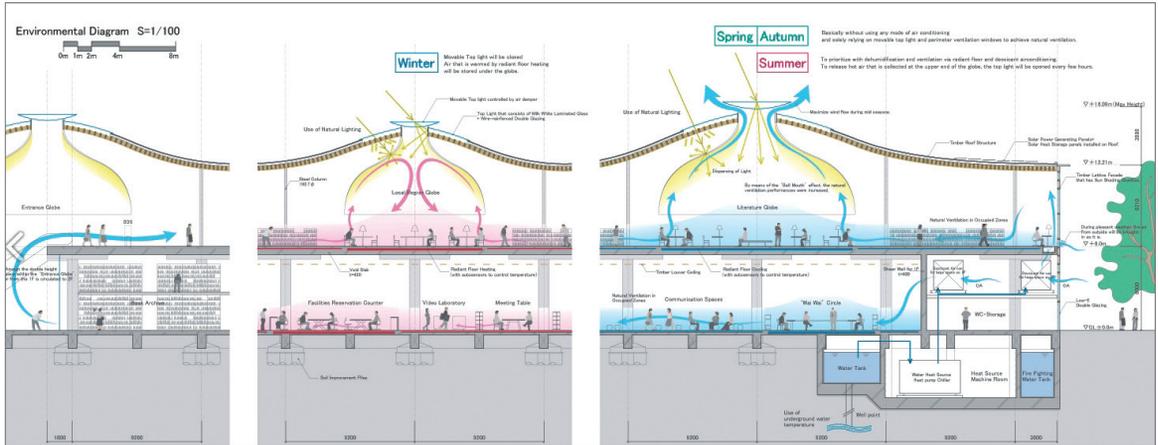
글로브는 위쪽에 일본 사이프러스 나무 합판으로 만든 부드러운 곡선의 지붕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개별 쉼터 공간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독서, 놀이, 공부 등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얇은 판이 21겹으로 짜여 형성된 사선의 지붕 그리드는 추가적인 구조적 장치가 필요 없을 만큼 매우 단단하다. 특히, 향기로운 사이프러스 나무는 공간을 덜 유형화하면서도 대기와 같은 자연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격자 세공으로 만들어져 내부 공간에 자연채광을 제공한다.



▲ 공간 디자인 컨셉





▲ 친환경 단면 다이어그램

1층 공간은 커뮤니티 극장, 갤러리, 정보 센터, 폐가식 열람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조직하여 개별적인 건물들이 공공의 거리를 따라 느슨하게 구성되는 공간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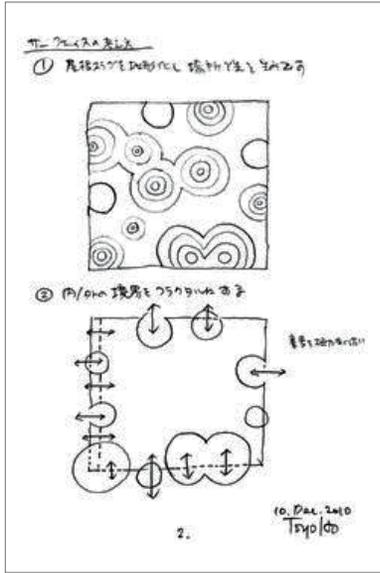
▲ 1층 평면도

종합하자면,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는 명확한 경계가 없는 하나의 개방적 공간에서 열람과 독서, 휴식 등의 행위가 혼재되어 서로 공유되고 간섭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센다이 미디어테크>에서는 튜브가 파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에서는 공간에 떠 있는 반구 형태의 글로브가 각 쉼터를 형성하여 각 연령대를 위한 경계 없는 영역이 만들어진다. 글로브 주변으로 서가들이 파문처럼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며, 행위의 파문이 관계를 이어나감으로써 내부 공간에 비평형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이토 도요의 공간디자인은 숨 쉬는 사이프러스 외피와 경계 없이 영역을 이루는 글로브 쉼터에 의해 생태적이면서도 지역성과 공동성을 동시에 지닌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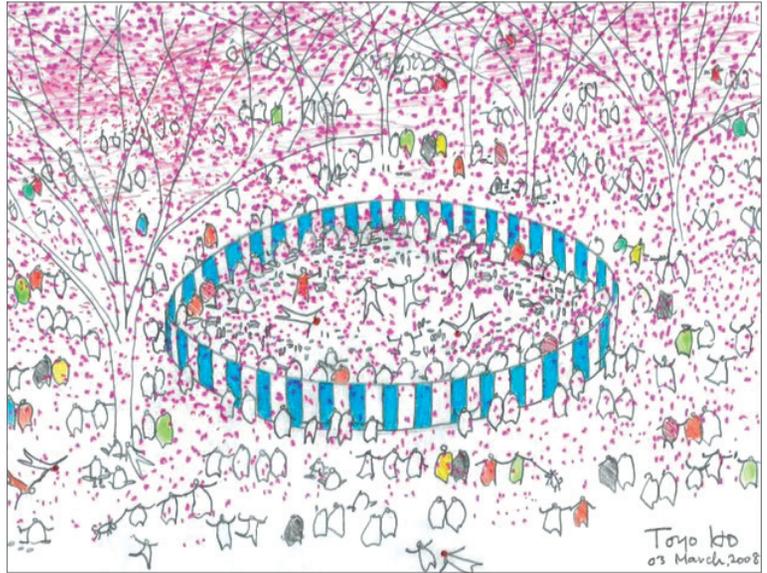
초기 인간은 동굴이나 나무에서 거주하며 기하학을 활용해 공간을 만들어왔고, 눈·코·입·귀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신체는 자연과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적 질서를 따라야 한다. 자연적인 공간은 각 부분품으로 구분 짓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연결되어 유기적인 전체 질서를 형성한다. 즉, 자연적인 공간은 조직을 구성인자의 면면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공간의 생성과 구조를 조직의 자발적 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층 실내 전경





▲ 내·외부 공간디자인 컨셉



▲ 이토 도요의 공간에 대한 사유 스케치



결론적으로, 이토 도요는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를 통해 자신의 공간에 대한 사유 스케치를 구체화했다. 벚꽃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행위가 발생하고 얇은 막으로 관계의 장이 설정되는, 불확정적인 현대 사회에서 마치 자연과 같은 자발적 생성 질서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원적 다양성을 공간에 부여했다. 그리고 자연을 향해 더욱 열린 유연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간 디자인적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가 이토 도요의 공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진출처

- 1) <https://iwan.com>
- 2) www.a-xun.com
- 3) www.designboom.com
- 4) <https://gogifu.wordpress.com>
- 5) www.pinterest.com
- 6) GSD, Kenzo Tange Lecture "Tomorrow's Architecture"
- 7) www.5oas.com

LEVEL UP

주요 컨설팅

028	공주시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색채디자인	공주시
030	서산시 음암 해오름 문화센터	서산시
032	계룡시 지하철도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계룡시
034	태안군 환동공원 조성사업	태안군
036	태안군 어린이10호공원 조성사업	태안군
038	부여군 백제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시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색채디자인

사업유형 공공매체

신청기관 공주시 교통과

자문위원 서동진 교수(상명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공주시 공공자전거는 특수 제작한 자전거로, 일반 자전거와 규격 및 재원이 달라 공공자전거를 위한 차별화되고 계획적인 색채디자인이 필요함
- 기존 공공자전거의 키오스크 및 거치대와 어울리고 공주시 CI·BI 그래픽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공주시 공공자전거의 홍보와 운영관리에 적합한 디자인이 요구됨

▼ 시안1





▲ 현황사진

컨설팅 내용

- 자전거 물받이 부분에 주목성이 높은 'GONGJU Yellow'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함
- 체인커버 부분에는 공주시의 White BI를 사용하고, 배경색에 'GONGJU Brown'(시안 2), 'GONGJU Blue'(시안 3)를 적용함
- 프레임은 White를 적용하여 간결함을 나타냄
- 프레임의 일부에 '흥미진진 공주'를 'GONGJU Brown'으로 표기하여 공주시의 정체성을 드러냄

▼ 시안2



▼ 시안3



서산시

음암 해오름 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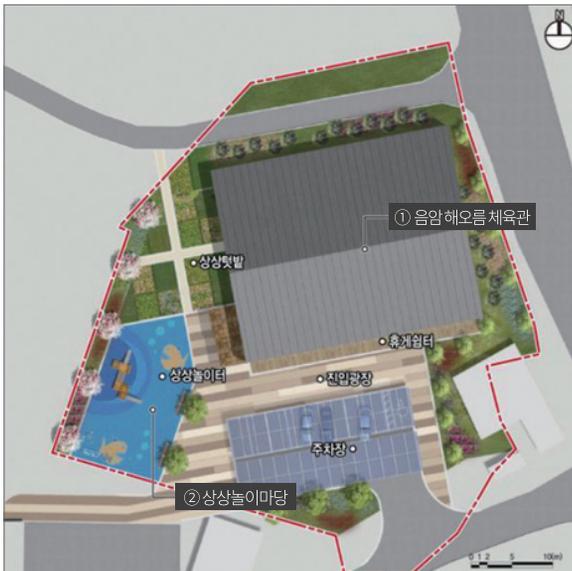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서산시 건설과

자문위원 조경수 교수(남서울대학교)
이기석 교수(선문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인접 부지에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
- 문화센터와 신축 체육관의 동선(보행자 및 차량) 연계를 고려한 배치 계획 검토
- 이용자 편의, 기능, 안전을 고려한 평면 검토 및 신축건물과 리모델링 건물의 입면과 재료 이질감 최소화
- 공공건축의 특성, 규모, 기능, 입지를 고려한 체육관의 입면 계획 재검토 사항 제안



▲ 체육관 배치도(변경전)



▲ 체육관 배치도(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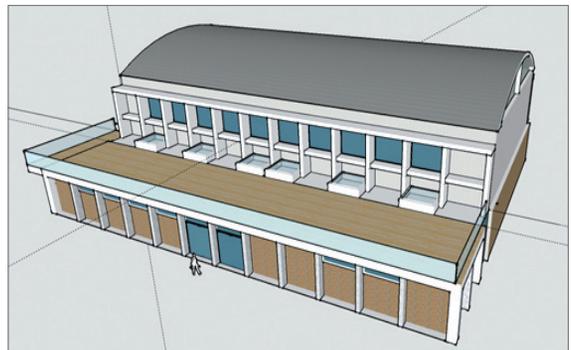
▲ 리모델링 대상인 문화센터(좌측)와 체육관 신축부지

컨설팅 내용

- 차량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육관 외부공간의 동선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차장 위치 변경
- 신축되는 체육관과 리모델링하는 문화센터의 보행자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
- 주차장 중심의 외부공간을 주민 및 인접 학교 학생들의 활용이 용이한 공공공간(진입광장, 상상놀이터)으로 개선
- 체육관 내 배드민턴장은 경기장 규격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후면공간을 확보하여 활동이 원활하도록 계획
- 탈의실, 화장실 등은 외부 시선이 차단되도록 계획
- 문화센터에 신설되는 엘리베이터는 유지관리(하계 누수 및 동계 결빙 대비) 및 냉·난방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동 배치
- 체육관 경사지붕은 형태적으로 부자연스러우므로 재검토 필요. 고측창의 경우 향과 높이 등을 재검토하여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 부대시설 상부를 평지붕 데크로 처리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 체육관 조감도(변경전)



▲ 체육관 조감도(변경후)

계룡시

지하차도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사업유형 공공시설물

신청기관 계룡시 도시주택과

자문위원 이종세 교수(건양대학교)
남택영 교수(대덕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계룡시는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계룡IC~연화교차로~계룡대 입구 구간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국방수도 계룡'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임
- 사업 대상에 금암동 지하차도도 포함되며 다양한 디자인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음
-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국방 도시' 이미지로 계룡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나, 성급한 진행으로 홍보 목적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디자인 적용 시 오히려 경관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시안 1



컨설팅 내용

-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며 통행이 잦은 6차선 자동차 도로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지하차도에 지역의 명소를 알리는 강렬한 문구나 이미지로 방문자의 주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홍보성 이미지는 지양함
- 색은 낮은 명도·채도를 적용하여 도로상의 터널 입구임을 과하지 않게 강조함. 또한, 색의 적절한 대비와 선을 이용한 패턴으로 주변 시설과 차별을 둠



▲ 시안 2



▲ 시안 3



▲ 시안 4



▲ 시안 5

태안군

환동공원 조성사업

사업유형 공공공간

신청기관 태안군 도시건축과

자문위원 김진기 교수(공주대학교)
최창호 박사(천리포수목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대상지 내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조하고, 육체 및 정신의 건강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단계에서 컨설팅을 시행하였음
- 대상지는 대부분 임야(80.4%)로 구성되어 있으며, 41~50m 고도가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해송과 안면송의 군락이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구역을 양봉장으로 이용 중이며 수림대 사이에 천막 등 인공 설치물이 산재하여 정리가 필요한 상황임
- 대상지 대부분인 80.4%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면적 중 절반이 고도 41~50m인 특성을 살려, 여가활동, 휴식, 생태 체험 및 교육,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 및 시설물 계획, 공간배치계획을 제시함

▼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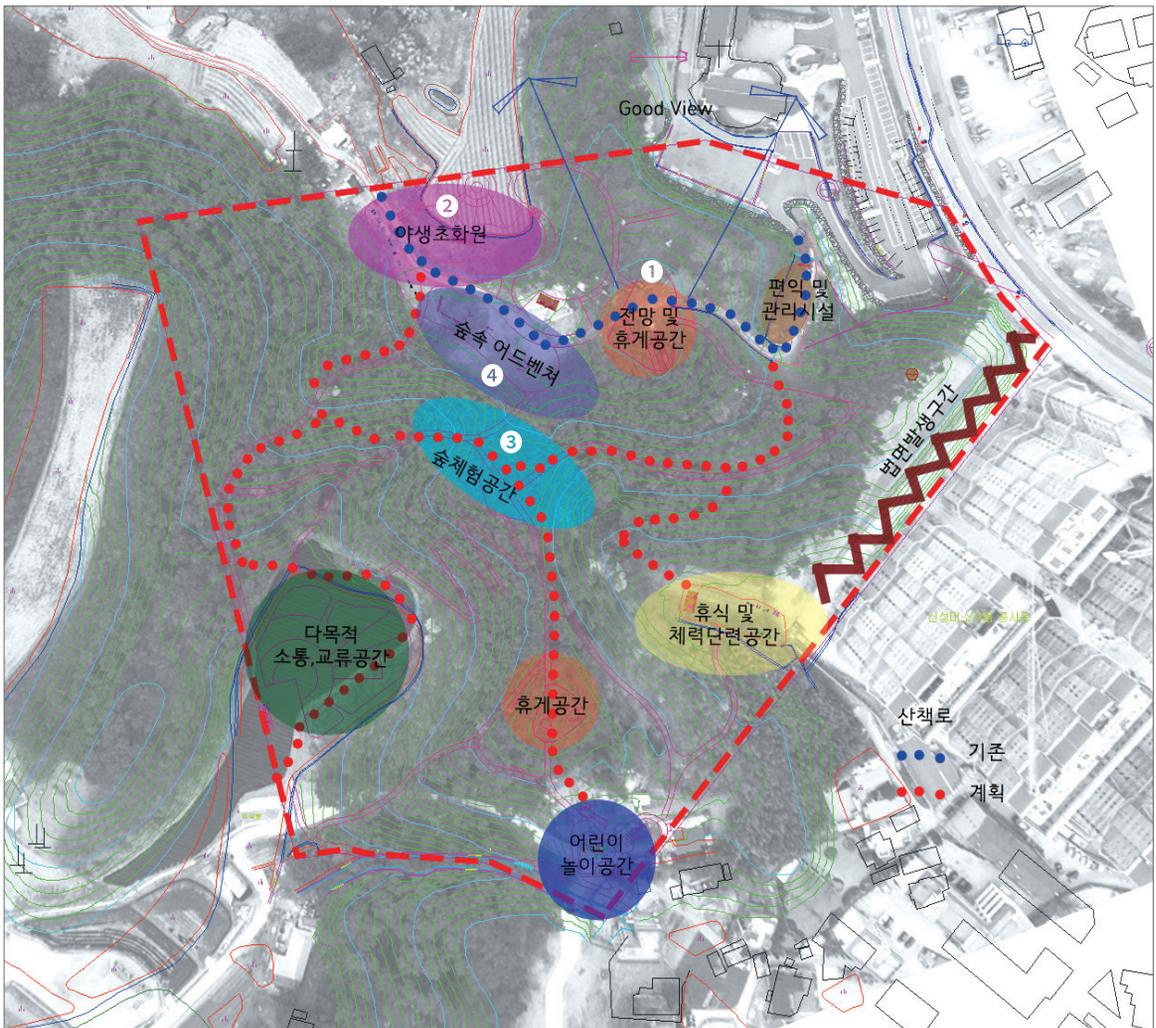
▼ 기존 계획안



컨설팅 내용

- 조망권, 고도 등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휴게공간 및 야생초화원, 어린이 놀이 공간 등의 배치를 변경하도록 제안함
- 숲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는 숲 체험교육 공간과 각종 숲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숲속 어드벤처 기능을 추가 제시함
- 산책로에는 토양침식 및 유출방지를 위해 친환경 소재의 매트(아자매트 등)나 나무를 이용한 데크 사용을 권장함

▼ 공원개념도 제시



태안군

어린이10호공원 조성사업

사업유형 공공공간

신청기관 태안군 도시건축과

자문위원 김준연 교수(나사렛대학교)

최창호 박사(천리포수목원)

박혜은 전임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대상지는 경사가 있는 지형이 특징으로, 경사를 활용하면 재미 있는 공간 창출 및 당초 계획한 토목공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대상지 주변에 어린이집, 도서관, 초등학교, 아파트 등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권 및 약자를 고려한 충남형 공원 조성 시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사진출처_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김진기 교수



현장적용

036



▲ 현황사진

컨설팅 내용

-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여주는 모험 놀이 zone, 어른과 영유아를 위한 zone, 무장애 통합 놀이 zone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부합한 시설물을 배치 하도록 함
- 지형을 활용한 미끄럼틀, 영유아를 위한 시소와 그네, 장애아를 위한 놀이기구, 보호자가 쉴 수 있는 파고라 및 앉음벽 등의 시설물이 필요함



▲ 현장적용 ①, ②, ③

부여군

백제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자문위원 김준연 교수(나사렛대학교)
최창호 박사(천리포수목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학생들이 학습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시행함
- 2015년도의 도로와 인접한 담장 붕괴로 인한 복구공사와 2016년도의 정문 왼쪽 부분 울타리 공사를 통해 수목 정비와 잔디 식재가 이루어졌으나 수목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임
- 미래숲, 야외숲, 비탈숲의 명상숲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과 접촉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교목인 은행나무 식재를 통해 학교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현재 정비가 미흡한 산책로 및 운동장 주변을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함



현장적용

컨설팅 내용

- 미래숲으로 조성되는 학교 진입로 오른쪽에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하부에 철쭉 및 회양목 등 다양한 관목류를 식재하여 진입공간의 장소성을 부여함
- 야외숲의 산책로 진입부 경계석을 제거하고 디딤판을 점토벽돌로 포장하며, 비포장 공간에는 다양한 관목을 식재하여 자연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도로와 인접한 비탈숲에는 소음차단과 경관 향상을 위해서 상단에 벚나무를, 하단에 조팝나무의 다층식재를 형성하도록 함



▲ 현황사진



▲ 현장적용



▲ 현황사진



▲ 현장적용

TEAM

서천군

마량진 동백정 마을

주민참여 경관개선사업



서천군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_박영순 팀장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마량리는 500여 명이 서해와 마량포구를 가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어촌마을이다. 마을 위쪽에는 서천군의 명소인 마량리 동백나무숲이 있다.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500년 수령의 동백나무 8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됐다. 언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서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일몰·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동백정이 나타난다.

마을 안쪽에는 최근에 개관한 서천 성경 전래지 기념관과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이 있으며, 매년 4월에 동백꽃 주꾸미 축제, 5월에 광어 도미 축제, 연말에는 해넘이 해돋이 축제가 열려 일 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해안의 명소라고 할 수 있다.

▼ 마량리마을전경



▼ 마량리마을 위치 및 주변자원





▲ 사업 주민설명회 및 착수보고회 ①, ②

마랑리의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 안 쪽으로 들어가면 약 100여 세대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낮은 담장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번 들어가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 또한, 마을 구석구석 어망·어구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어 어촌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마을 주변에 잘 정비된 관광지와의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더욱 경관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서천군은 마랑리 마을의 경관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16년 충남 건축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경관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이후 1년 동안 마을주민과 함께 추진한 마을 경관개선사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 경관개선사업은 대표적인 주민참여 사업이지만 어촌 마을인 마랑리 주민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주민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 방편으로 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수차례의 주민회의 등을 진행하며 주민의식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단기간에 낼 수 있는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랑리 마을의 풍족한 관광 자원도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다. 어느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마을과 연계를 추진하고 집중할지, 그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주민들은 동백꽃과 동백정, 마랑포구, 해돋이, 성경 전래지,

아펜젤러순직기념관 등 자랑스러운 지역 관광 자원 가운데 무엇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협의 과정에서는 마을의 전통성이 중요한가, 지리적 특성이 중요한가, 기독교적 역사가 중요한가, 해돋이 등의 축제가 중요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았다.

주민과 군은 접근을 달리해 마을 이름짓기를 먼저 진행했다. 비록 마을 주제에 관한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지만, 마을 이름이 확정된다면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이 첫발을 거름 삼아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 목적지에 닿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함께 품었다. 오랜 논의 끝에 주민 다수의 동의를 얻은 ‘마랑진 동백꽃 마을’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우후죽순 튀어나왔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이름짓기를 고심하였고, ‘마랑진 동백정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했다. 이후에도 ‘해돋이 마을’이나 ‘마랑포구’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있었는데, 군과 마을주민은 하나의 공동체를 단단히 다지기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설득을 지속했다.

마을 이름 짓기에 이어 지역의 환경개선과 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 입구 정비(간판정비), 골목길 정비(담장 도색, 고보조명, 이정표, 다룬라이트 설치), 마을주차장 종합안내판 설치, CCTV 설치, 버스정류장 주변 정비 등이다. 이전에는 마을 입구에 각종 불법 간판이 난잡하게 세워져 있었고, 버스 승강장 주변에 기울어진 간판과 어구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마을 안쪽에는 좁은 골목길과 낮은 담장 사이로 어망·어구들이 산재해 있었다.

마을 경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디자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생업으로 바쁜 주민에게 수차례의 학습과 회의를 거쳐 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고 디자인 시안을 선정하는 과정은 무척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을 선정하고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그 낯선 과정은 점차 일상이 된다. 마을 이름을 지어 입구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골목길을 환하고 안전하게 만들자는 의견이 다수의 주민 동의를 얻으면서, 디자인 선정과 시행은 점차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록 공공디자인이라고 부르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노력과 관심 쏟아 변화시킨 마을의 모습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밤에도 환한 골목길을 안전하게 걸으며 바닥에 비친 글귀를 읽는 일이 즐겁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마량리 주민은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찾았다.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마을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노력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마을입구 정비 전



▲ 마을입구 정비 후



▲ 울타리 정비 전



▲ 울타리 정비 후



▲ 담장 도색 전



▲ 담장 도색 후



▲ 골목길 고보조명



▲ 골목길 이정표(라이팅박스)



▲ 야간조명



▲ 관광안내도(마을그림지도 작성)

FOCUS ON

센터 정책연구 및 소식

048 2017년도 정책연구 성과
054 2018년도 정책연구 소개
055 센터소식

2017년도 정책연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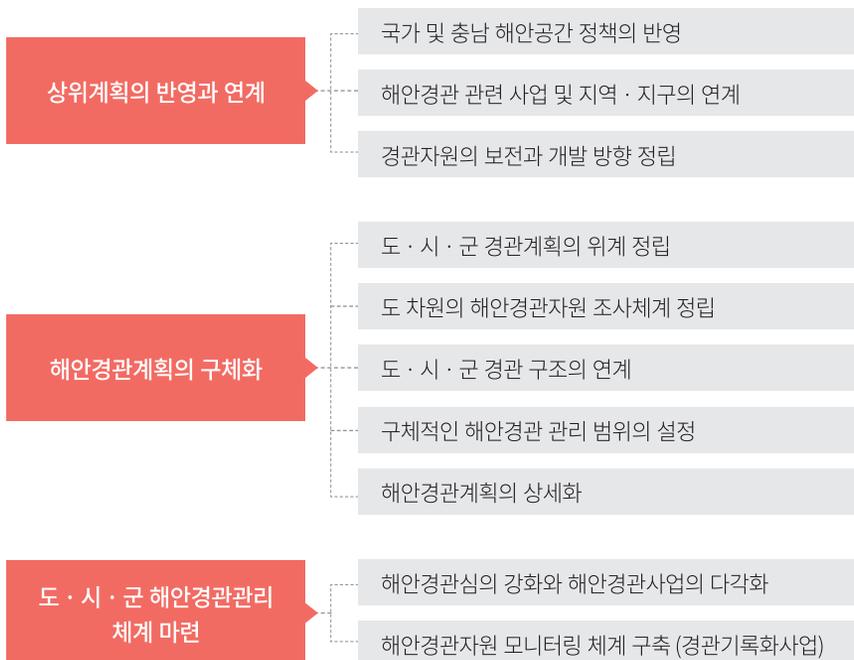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서해안 지역과 해안 공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안개발의 범위와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토지이용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해안 공간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해안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등 관련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경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충남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을 통해 도·시·군 해안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안경관관리의 주요 과제와 경관계획 수립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안경관관리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7개 시·군 해안현황 및 경관특성을 현장답사와 문헌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충남 및 시·군 경관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해안지역 관련 국가 및 충남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충남 해안경관관리의 과제를 정책적, 계획적,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10개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 충청남도 해안경관관리의 과제



정책적으로는 국가 및 충남 해안관련 계획의 공간 정책을 반영하고, 해안경관 관련 사업 및 지역·지구와의 연계, 경관자원의 보전과 개발 방향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상위계획의 정책과 사업을 경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의 경관관리 수단과 연계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 해안경관관리와 관련된 사업, 지역 지구, 계획

구분	내용	관련법 및 계획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정비사업 	해양수산발전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어촌체험마을, 명품어촌어항 조성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유형(무역항, 연안항)별 관리 	항만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 그랜드디자인사업 어항 정비사업 	어촌어항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용도지역·지구·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선 보호구역 해안중점관리구역, 해안연접관리구역 	해양경관관리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용도해역제, 연안해역기능구 연안침식관리구역, 자연해안관리목표제 	해양수산발전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해양보호구역 	연안통합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지구(가칭)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보호구역 	습지보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습지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관리 	어업·어촌 중장기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관광진흥지구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관리(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관리지역계획 (가로림만, 천수만, 아산만 등) 	연안통합관리계획 충남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연안관리지역계획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선 경관보전 가이드라인 개발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농촌경관의 다원적 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하여 웅진군과 조치원읍 등 경관협정을 통해 경관을 관리·보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경관협정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촌경관에 대한 가치를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고 보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관리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 분담이 중시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충남 농촌의 여건에 맞는 경관협정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고찰 및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경관협정 추진과 운영방향 정립, 충남의 경관협정 추진 여건 분석, 이를 바탕으로 충남 농촌경관협정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지원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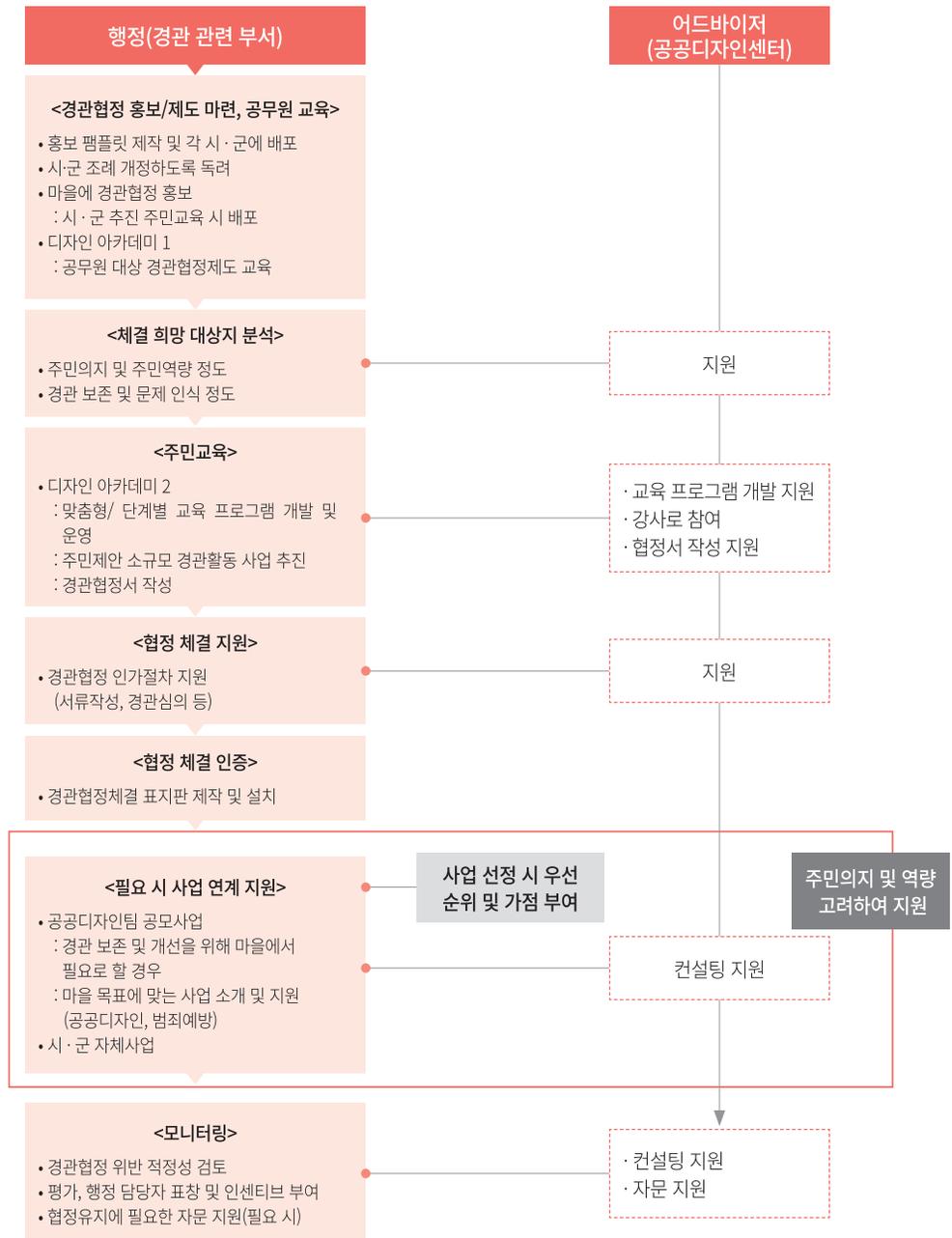
<p>지원 대상 : 충남 농촌경관 요소 및 경관 보존/향상 활동 (자연 및 인공경관, 사회문화 제도의 생활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산림, 구릉지, (소)하천, 습지, 산책로, 해안 등 • 생활경관: 주거시설, 공업시설, 상업시설 • 생산경관: 농지, 농업시설 • 역사문화경관: 사적, 유적, 관광시설, 마을행사 및 시설 • 경관을 보존 및 향상하기 위한 활동
<p>지원 목표 : 결과보다 과정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활동 전제 • 주민이 보존하고자 하는 경관 발굴 및 제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 추진 • 현장중심 스튜디오 방식의 교육 및 워크숍 등 경관교육 추진
<p>지원 내용 : 공공영역 지원 우선, 지역 간 형평성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관 요소 중 공공영역 중심으로 우선 지원 • 경관협정 유지 및 공감대 형성 이후 민간영역 지원 • 전반적인 농촌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 시 민간영역 지원

▶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지원방안

대상 및 단계별 차별 지원	제도적 지원	사업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정도 및 경험유무 등 주민역량에 따른 지원 차별화 • 유도/기획/체결/운영 등 단계별 역량에 맞는 지원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위주가 아닌 주민주도 경관협정 유도 • 행정적 및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역량 및 지역특성 고려하여 필요시 사업 연계 지원 • 연계사업 추진 시 행정적 및 전문적 지원

경관협정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경관인식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이 중요하다. 더불어 담당 공무원들의 경관협정 인지도 향상 교육도 필요하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공무원 대상(디자인 아카데미 1)과 주민 대상(디자인 아카데미 2)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체결 단계별 지원 실행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방면에서 효율적인 관광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기관과 관광업계 역시 관광을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맨 실정이다. 충청남도도 수많은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도내 문화재들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관광 및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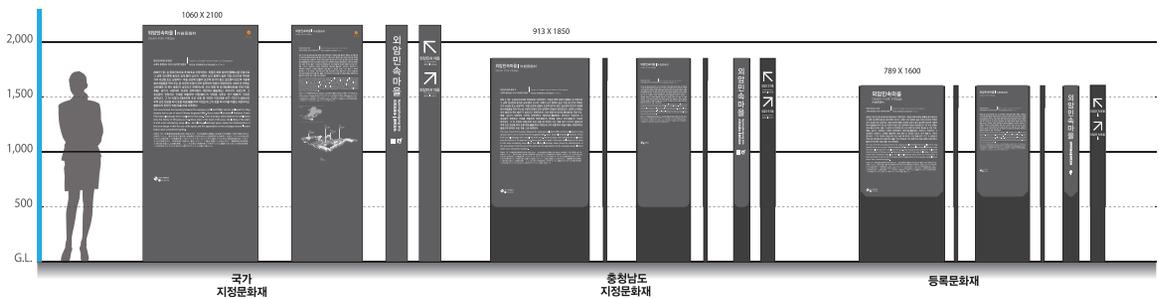
도내에 분포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총 1,016점이다. 이들은 모두 역사적 가치와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자산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토대로 엄격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충실한 관리가 우선되면, 지역의 역사적 가치는 당연히 높아지고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를 통해 탐방객에게 지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바르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재에 관한 설명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화재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행정 일선에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분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계
	국보	보물	국가 민속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무형 문화재	충남 유형 문화재	충남 민속 문화재	충남 기념물	충남 무형 문화재	충남 문화재 자료		
천안시	1	7		1		2		8		13		27	24	83
공주시	15	20	1	8	1			46	2	20	6	31	5	155
보령시	1	3		3		1		12	2	8	2	20	1	53
아산시	1	20	5	3				9	7	8	3	25		81
서산시	1	12	2	3				13	3	9	4	20	2	69
논산시		9	2	2		1		24	3	15	3	34	7	100
당진시		4	1	1		2	2	3	1	12	2	7		35
계룡시								1	1	1	1	4		8
금산군		1		1		2		7		5	3	20	2	41
부여군	4	18	6	21	1	2	1	23		27	5	44	3	155
서천군		2	1	2		1	1	1		8	6	15	1	38
청양군	2	7						5	4	4	3	9		34
홍성군		4	3	2				5	4	10	6	19	1	54
예산군	1	10	3	2		1		15		17	3	32	2	86
태안군	1				1	4		5	1	4	2	6		24
비율(%)	2.7	11.5	2.4	4.8	0.3	1.6	0.4	17.4	2.8	15.8	4.8	30.8	4.7	100
계	27	117	24	49	3	16	4	177	28	161	49	313	48	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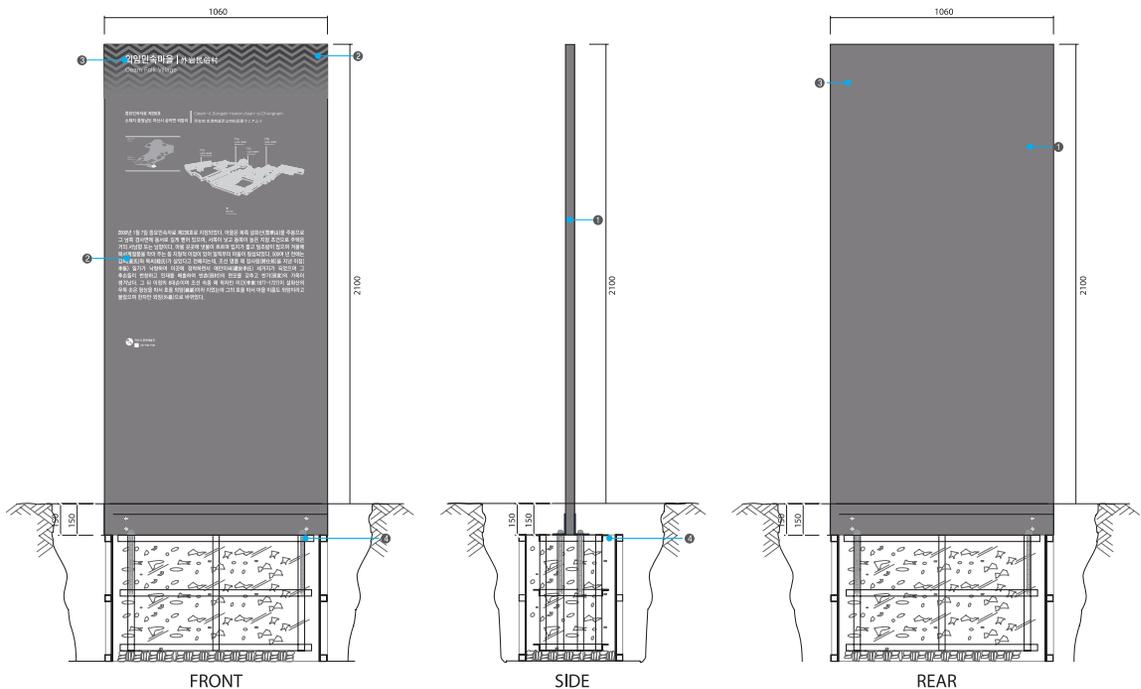
문화재는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의 주도로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화재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인성도 낮아 관광객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충청남도는 기존 문화재 표지판을 개선하여, 충청남도의 특성이 반영된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통해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재를 바르게 알리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 기본디자인



▶ 기초매립도면



2018년도 정책연구 소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충청남도는 도, 15개 시 군,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 컨설팅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공공디자인 센터 확대를 통해 컨설팅 수요를 창출하고, 증가하는 디자인 관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충남 공공사업의 전반적인 디자인 개선과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컨설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컨설팅 운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컨설팅 사업 및 성과 분석, 참여주체(공무원, 자문위원, 설계사) 인터뷰 및 설문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 컨설팅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관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커다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각 사업 주체의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효과는 물론 디자인의 일관성 등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됐다. 따라서 일관된 경관형성 및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 간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사업추진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지역 경관 형성 사업 추진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충청남도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실태분석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충남형 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충청남도 관광 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는 '제6차 충청남도 관광권역계획'(2017년~2021년)이 수립됨에 따라, 관광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우선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관광 기간 연계성을 높여 충남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적인 관광 패러다임에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트렌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관광지 및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데 필요한 안내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충청남도도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관광지에는 통합된 안내시스템이 없어, 잘못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거나 외국어 표기 부재 및 오기 등 다양한 오류가 빈번하게 있어왔다. 이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혼선을 주고 지역 관광자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려리는 등 안내표지판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지역의 특성을 담은 안내판 디자인과 통합된 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 경관을 조화롭게 가꾸고자 한다.

센터소식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상반기 워크숍’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충남 시·군 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간재생 사례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난 4월 26일 신동업 문학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신동업 문학관 조성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범준 대표(TOPOS architects)는 ‘주거환경개선 중심의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을 주제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완화된 주요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윤종태 부소장(이로재 건축사사무소)은 ‘신동업문학관, 스스로 기념하지 않는 집’을 주제로 신동업 문학관 추진 배경과 실행 과정을 소개하고, 워크숍 참석자들과 함께 신동업 문학관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예정인 하반기 워크숍에서는 충남 시·군 관계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 디자인 특강’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공공디자인 관련 국내·외 이슈와 동향을 충남 시·군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2018년 ‘충남 디자인 특강’을 총 6회 개최한다.

첫 번째 특강은 지난 3월 28일 김주경 소장(오우재 건축사 사무소)이 ‘공공이 짓는 건축, 기획과 자율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주경 소장은 공공건축 프로젝트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의 중요성과 공공기관 관계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질 높은 결과물을 위한 합리적인 발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특강은 조주연 대표(사회적 기업 쥬티팟)가 맡아 5월 30일에 진행됐다. 조주연 대표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혁신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사회혁신 디자인 사례를 예로 들어 도시 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반기에 진행될 특강에서는 건축, 조경,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전문가 초청,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최신 디자인 트렌드 공유를 위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설명회’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2018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대상 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컨설팅 설명회를 2회 진행했다. 첫 번째 설명회는 3월 23일 충청남도청에서 열렸으며, 방재성 센터장(충남공공디자인센터)은 ‘공공디자인 컨설팅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센터의 역할, 공공디자인 영역, 컨설팅 대상, 컨설팅 활용 방안, 컨설팅 운영 성과 등을 설명했다. 또한, 사업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월 9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교육청 컨설팅 대상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재성 센터장은 학교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외·내부 시설 및 색채디자인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전형적인 학교 설계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설계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신청이 미미한 시·군 및 공공기관 지회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청남도 디자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계획 및 상호협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건축, 조경·도시·농촌계획 분야)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디자인 현안 공유 및 효율적인 컨설팅 운영을 위한 분야별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5월 11일과 6월 1일 양일간 진행된 분야별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이 초기보다 많이 개선된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도 컨설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반기에도 충청남도 디자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 및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공간·산업·시각디자인분야)’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와의 MOU 체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와 상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는 관·학 연계를 통해 뛰어난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3월 9일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① 디자인 우수인력 양성 및 인력지원, ② 지역프로그램 연계 교류 지원, ③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④ 인턴십 및 취업기회 제공, ⑤ 기타 양 기관의 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교수 및 학생교류 적극 지원 등이다.



충남 경관협정 도입 방안 제시 (2018년도 제1차 충남 경관개선 실무협의체)

충청남도 경관 관리의 실행수단과 방법론 도출을 위한 도·시·군 디자인 담당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실무진 회의가 6월 1일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 경관업무(경관계획, 경관조례 등) 추진상황 점검과 건축물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관련 규정 안내 등이 이뤄졌다. 또한, 박혜은 박사(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경관협정 개념 및 도입 방안’ 발표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경관협정을 시행 중인 지역을 소개하며 충남의 지속가능한 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전제되는 경관 협정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황진찬 팀장은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실무진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는 2018년에 디자인컨설팅 사업을 도입하고 이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였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충남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두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5월 31일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를 방문하였다. 공공디자인센터는 운영체계, 디자인컨설팅, 정책연구, 디자인 행정 역량강화사업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체계와 주요 사업을 소개하였다.

제주도는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센터 운영을 높게 평가하였고 제주도 행정 체계에 부합하는 디자인 컨설팅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충남의 디자인컨설팅 대상사업 선정방식, 사업단계별로 진행되는 컨설팅 운영체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향후 지역 공공사업의 디자인 개선과 경관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정책동향

064 중앙부처

079 광역지방자치단체

099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중앙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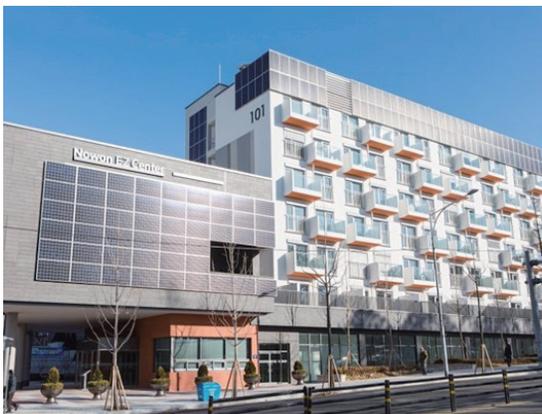
건축 및 도시

“난방 안 켜도 따뜻해요” 노원에 첫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입주

2017. 12. 07.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와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 주택(이하 EZ house)에서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노원 EZ house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주택으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실증단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 실증단지를 통해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련 분야 산업 육성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기술이 적용된 노원 EZ house 각 세대는 동일 규모의 기준주택(2009년)과 비교해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에 연간 약 97만 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전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의 디딤돌로 자리 잡을 예정이며, 입주한 전 세대가 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공동육아, 1인 1텃밭 등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 노원 EZ house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2017. 12. 14.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 주거재생과 / 지원정책과 / 도심재생과 / 경제거점재생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선정) 지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9.25)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다. ② (시범사업 주요 특징) 지역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문화 재생과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주거지를 정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 및 공공임대 상가 조성사업, 주민참여형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농어촌 지역 4곳도 선정되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③ (시범사업 추진 계획) 시범사업은 2018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별 쇠퇴 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고려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2019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인천광역시 선정

2017. 12. 20.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광역시를 ‘2019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한·중·일 3국은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숙박과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다수의 국제행사 개최 경험, 지역 고유의 문화특성을 활용한 세부 행사 프로그램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인천 개항장의 역사성과 청일 조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인천 개항장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 사운드시티, 디아스포라 동아시아영화제, 동아시아 문학 포럼 등 기존의 사업과 연계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무국을 설치해 개·폐막식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도로 상공·지하 공간 활용 ‘창의적 도시재생’ 아이디어 14건 선정

2017. 12. 29.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도로 상공·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한곳에 모였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간 입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도로공간 입체 활용을 위한 제도 도입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 취지를 폭넓게 알릴 수 있도록 시행한 것이다. 공모전 결과, 일반제안(개략적 개발구상) 53건, 전문제안(사업 타당성 등 구체적 분석) 19건 등 총 74건이 접수되었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의 ① 충실성, ② 적합성, ③ 창의성, ④ 실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총 14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이 당장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제안 대상지의 지자체 등 해당 도로관리청이 지역 여건과 사업성을 종합검토 후 사업화를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 노후 청사 23곳 재탄생, 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

2017. 12. 29.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 청사, 수익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와 재원 분담방안 등을 협의하고 2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며, 청사 건설비는 일차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나 장기 분납을 할 수도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지의 개발 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비율은 상세 사업성 분석 결과 및 세부 건축 구상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었으며, 2022년까지 1만 호 준공과 1만 호 추가 후보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도사업 물량(약 2,700호)과 1차 공모사업(약 3,600호) 물량을 포함하여 총 6,300호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여 5천호 규모 물량을 새로이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 01. 02.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8.1.2)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제26조 별표 2),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 제한 개선 등(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로 점용 허가 정비(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이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어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2018. 01. 02.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총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 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시설 부족,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주변 개발여건·지역주민 개발수요·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를 살펴보면, ① 전라북도 익산 시청사는 청사 노후화로 인해 보수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상황으로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광장·문화시설·공원 등을 설치하여 주민 친화적인 복합 공공청사로 개발하는 방안, ② 경상남도 합천군청사는 청사가 4곳으로 분산 운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다문화가정 지원시설·작은 영화관 등 문화·복지시설 공간으로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며, ③ 충청북도 진천군 (구)전통시장은 노후화로 인해 백곡천 복측으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유휴지로 관리됐으나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복합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도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역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 농촌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

2018. 01. 04.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차 5개년(2013~17)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 제도 정비, 기본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텃밭 면적 참여자 수 증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 지원으로 전문인력 배출, 98개 지자체 조례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개최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텃밭 면적 및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 ② 영역확장형 신 서비스 창출, ③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 ④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이세요

2018. 01. 11.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종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에는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선정은 평가 위원회가 선정 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하여 총 21개 사업 내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후 최소 3년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이 사업은 총 84개소 건축물에서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을 최대 73%(4등급→1++등급)까지 달성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총 1,400억 원 규모의 건축투자를 유발하고, 냉·난방비용 절감(연간 31억 원)과 연간 14,8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 아이디어로 제로에너지 건물 건축비 부담 줄인다

2018. 01. 21.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기술 도입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을 신산업 분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제로에너지 건축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에 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시범사업 및 연구개발(R&D) 추진 등 제로에너지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으나, 건축주의 추가 건설비 부담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해왔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사는 ① 주제 적합성, ② 모델 창의성, ③ 파급성·효과성, ④ 실현 가능성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6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이 제로에너지 건축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참여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하였다.

여성가족부, 아산시와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2018. 01. 25.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아산시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여성가족부는 협약 내용에 따라 충남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장미마을'을 여성이 주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미마을의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는 난립했던 유흥업소들이 급감

하면서 공실률이 증가하여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시급한 곳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여성 인권유린과 차별의 상징이었던 장미마을은 여성 인권의 상징 마을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① 해당 지역을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청년의 거주 공간이자 창업 활동 공간으로 개발, ②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여성 퍼실리테이터 및 여성 주도 거버넌스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여 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축적한 도시운영의 노하우를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연계 가능한 돌봄 및 일자리 사업, 여성역량 강화 사업 등을 아산시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2018. 01. 29.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 의결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그간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또한, 혁신변화를 이끌기 위해 ①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②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③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을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2018. 01. 31. | 산림청

산림청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방안은 도시숲을 확충하고 외곽 산림을 생태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람길을 통해 도시 외곽의 찬바람이 도시 내부에 전달되면 대기 정체가 해소되고 도시 내부의 미세먼지를 조기에 분산시키며 열섬현상이 완화된다. 주요 내용은 ① 생활권 내 그린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활용 확대, ②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숲과 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강화, ③ 도시숲이 지속될 수 있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등이다. 산림청은 그린 인프라 구축은 산림청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며 시민·기업·지자체·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 02. 06.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18.2.6)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강화, ②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허용, ③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이다. 그 외에도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난립한 건축물을 정비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m→10m)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2017.12.30)되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간담회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였으며,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장 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를 빈틈 없이 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018. 02. 07.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투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및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시·도별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등이 사회적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시제품·마케팅·디자인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주민 고용 등 사회적 가치와 사업 정착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발굴해 시도별 육성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22개를 도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출, 투자 등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제도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2018. 02. 09.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이후에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

그럼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비전수원 지동골목모습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실시

2018. 02. 13.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공모'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 올해 정부는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해 시범사업으로 4개 내외 지자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면 쇠퇴한 지역 내 유휴 다중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각 지역 사업 담당자 간 연결망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생 포럼과 정부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도시재생뉴딜과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의 부처 간 정책적 협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현재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문화 프로그램 지원(생활문화공동체,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적 공간 조성(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등 도시를 문화적 삶의 장소로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뉴딜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활력 제고 등,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 위한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린다

2018. 02. 13. | 문화체육관광부 | 행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복주택에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에게 행복주택을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청년(예비)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 주택과 지자체의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해당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2018. 03. 01.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자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내용은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 추진, ③ 이주비 용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 강화, ④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하여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공공자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영향평가로 문화적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지원한다

2018. 03. 05.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인문정신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 삶의 공간과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규모는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년도 5개 시·도, 5개에서 전국 12개 시·도, 18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용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국토교통부 확정기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 및 컨설팅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고, 기존 평가와 함께 컨설팅에도 집중한다. 평가·컨설팅단은 문화, 관광, 도시,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해당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예산 651억 원 투입으로 공영주차장 68곳 조성

2018. 03. 08. | 국토교통부 | 도시광역교통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차환경개선 예산 651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주차 관련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도심·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조성, 무인주차관리시설 설치,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약 1,400억 원이

투자된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지하철역세권, 재래시장,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이 중 44개소를 올해 완공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차환경개선 예산을 지속 발굴하여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차 불편 및 불법주차 해소에 이바지하고 주차장을 찾는 배회교통량 감소 등으로 교통혼잡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적경제 접목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2018. 03. 08. | 국토교통부 | 지원정책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발굴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주민참여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업 안정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기반 비즈니스 모델발굴 등을 위하여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하여 특정 과제(사업·창업, 재생사업계획수립, 재생이슈 도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팀도 3월 중 공개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 정식 개장

2018. 03. 1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계획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원수산 일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파랑새 유아 숲체험원' 조성을 완료하고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파랑새 유아 숲체험원은 생태 놀이장 및 관찰학습장, 숲 체험장 등 야외학습장뿐만 아니라 대피시설, 안전시설, 화장실 등의 지원시설을 갖췄다. 운영계획은 오전·오후에 각 2개 기관에서 25명 내외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3월

부터 12월까지 다양한 학습을 시행한다. 또한, 정기형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수의 아이에게 숲체험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숲체험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행복도시 유아숲체험원은 전월산과 괴화산에도 각각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무궁화테마공원’ 개장 시기에 맞춰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파랑새 유아 숲체험원



기초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2018. 03. 15.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뉴딜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 소재 교육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여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대학이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초기 사업화 지원 교육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 가능한 경제조직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개선사항을 추진한다. 한편, 현재 7개 시 및 2개 도에만 설치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하여, 뉴딜사업 추진 외에도 광역단위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발굴·지원, 집수리·주거 지원 사업화 안내, 지역 기반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마을미디어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적 도시재생 우수모델 만든다

2018. 03. 20.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 총 4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선정해 쇠퇴한 지역 내 유향 다중공간의 문화적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재생의 우수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① 충남 천안시는 남산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유향 공간을 세대 간 상생 공간으로 구축, ② 전북 군산시는 원도심 일대 고지대마을인 신흥동 근대마을 조성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과 주민 이야기를 발굴해 문화 앵커 장소로 재구성, ③ 경북 포항시는 북구 중앙로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간과 콘텐츠를 연계해 도심 문화예술 중심지(허브)를 조성, ④ 부산 영도구는 남항동 대평로 1, 2가(구 대평동)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문화사랑방과 동네 제작소(메이커스 스튜디오)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 도시문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문화재생 모델을 찾아내고, 장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충남 천안시 중앙시장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

2018. 03. 22. |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과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3월 23일 개정·발령했다.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해당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정원 표기를 개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축주 등이 건축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2018. 03. 27.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검토 배경)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 ②(주요 내용)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 ③(향후 추진계획)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 쇠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 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보증·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대학교 기숙사·직장 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 04. 01.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대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 ③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 요건 추가이다. 그중 지자체가 비 시가지화 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 요건으로 지역·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하였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비 시가지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 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연내 시행키로

2018. 04. 08. | 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 도로정책과, 도시광역교통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경사진 주차장 교통안전 확보, ② 지하주차장·드라이브 스루 진·출입구 위험 해소, ③ 대형주차장 안심 보행환경 조성, ④ 고속도로 졸음쉼터·휴게소 안전확보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되었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하여 가급적 연내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2018. 04. 09.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4개소에 개소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상담 시 사업지원 순서는 ① 사업상담, ②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③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및 공공지원사항 결정 등, ④ 건축사·시공사 추천 및 실시설계 등, ⑤ 인허가 절차 관리, 사업비 융자지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되고, 뉴딜 사업지 이외 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전 세계 아이디어 모아 통영 폐조선소를 ‘한국판 말뚝’로 만든다

2018. 04. 15.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국제공모는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실현 가능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기존의 유사한 국제공모와 달리 건축, 도시, 조경 분야 외에 부동산 컨설팅, 문화 및 관광 콘텐츠 분야의 전문 업체(또는 전문가)의 참여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능력 있는 신규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 실적(10%)보다 도시재생에 관한 아이디어 등(50%)을 지명 초청 팀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부터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레인·도크 등 기존 시설물 활용 방안, 상징물 건립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하여 지역주민과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을 도시재생과 산업전환을 통한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로 만들기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국제공모는 사업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통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영 신아에스비(sb) 폐조선소부지 전경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정부 차원 적극 지원

2018. 04. 17.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도시정책과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해당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국민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추진 방향은 ‘집행을 최대한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 방안은 ① 우선 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②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③ 향후 장기 미집행 발생 방지이다.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과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성능 높이고 온실가스 줄이고,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2018. 04. 19.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공지원은 일반 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에 단열, 고성능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공 이후에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체험하고 적용 기술과 공법을 공유하는 견학 장소로도 활용된다. 시공지원 대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은 1982년도에 준공되어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조 보강으로 A등급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벽체 단열·고효율 창호 교체·고효율 냉난방 시스템·화재방지 시설 등을 개선하여 기존 대비 4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용도별·규모별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공·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성능개선 활동이 촉진되고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물론, 주거·업무 환경 개선 및 화재·내진 성능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2018. 04. 24.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 주거재생과 / 도시재생경제과 / 도심재생과 /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100곳 내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가운데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고 작은 건설 공사가 동반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로 인해 정부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 광역단체별로 차등화된 예산 안의 범위에서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5년간 연 100곳씩 500곳을 선정해 매년 10조 원을 투자한다. 그 결과, 기존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공급해 온 주택개발사업 패러다임도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구도심 정비사업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사업지 선정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정부는 지역주민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꿈의 놀이터 추진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2018. 04. 2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특화경관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 놀이터인 ‘꿈의 놀이터(가칭)’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놀이터를 직접 이용하는 어린이와 교사·학부모·주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인 조치원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주민도 함께 참여했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① 시범사업을 총괄자와 협의를 통한 부지 선정, ② 놀이터 디자인 제시, ③ 설계 및 공사단계 확인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행복도시 1호 ‘꿈의 놀이터’는 2019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개장한 뒤 주민과 어린이 등의 만족도가 높으면 점차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5월부터 인증

2018. 05. 02.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5월 2일부터 인증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받은 민간기업의 통합플랫폼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플랫폼을 개발(2013.6.)하여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인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기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필수이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함은 물론,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스마트코리아 만든다

2018. 05. 08. |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공간정보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인천광역시의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사례’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사례로 KT의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한 주유소 자동결제시스템 등 응용서비스 개발현황’을 보고받으며,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민·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기반전략)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② (융합전략)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③ (성장전략)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④ (협력전략)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이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 착수, 문화로 지역 살리기 본격화

2018. 05. 10.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도시는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중심형과 지역 자율형 등 분야별로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예비사업 추진, 5년간의 본사업 추진 등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 및 문화도시 간 교류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 주도형 도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2019년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8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경관 및 공공공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공모

2018. 03. 25.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법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서비스가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비용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제안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기성시가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2020년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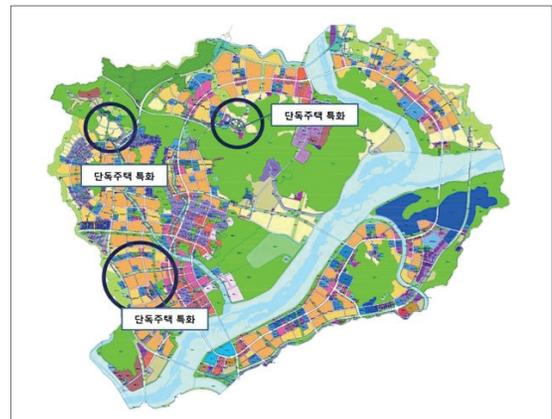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단독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특화사업 실시 전국 4개소 선정계획

2018. 04. 0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특화경관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제1차 행복도시 도시특화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행복도시 특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축이 미진한 단독주택용지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전개하여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단독주택단지 조성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화운영위원회’에서는 위치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고운동(1-1생활권) 및 해밀리(6-4생활권) 등에 7여 개의 단독주택 특화사업 대상

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공동전원주택(타운하우스), 로우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단독주택 유형 다양화와 함께, 일률적으로 330㎡ 수준으로 공급되던 용지규모도 수요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참여기회가 낮았던 신진건축사,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접목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다각화하여 기존 획지형·블록형뿐만 아니라 개발 여건에 맞춰 연합형·대규모 단지형 등의 공급방식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올해 추진되는 단독주택 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다양한 수요자가 만족하는 동시에 우수한 도시경관을 선도하는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2018년도 단독주택 특화사업대상 검토(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은 어디?

2018. 04. 23.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구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 등 치수(治水) 위주의 획일적인 소하천 정비 방식을 탈피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역사·문화·경관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소하천 가구기를 위하여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최근 5년간(‘13년~’17년) 준공한 소하천 정비 사업에 관한 현황, 사진 등 설명 자료를 공모기간(4.23~5.16) 내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성, 지역 특성화,

주민참여도, 조화성 등 12개 항목의 서면·현장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기관의 강의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소하천 정비 정책에 모범사례로서 반영된다. 역대 공모전에서 경기 남양주시 호만천(2017년), 전북 부안군 운호천(2016년), 경북 영주시 왕당천(2015년) 등이 최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안정적인 치수 기능 확보라는 소하천 정비의 본래 기능 외에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마을 만들기

주민이 주도한 개발로 낙후지역에 소득창출의 꽃이 피다 전국 4개소 선정계획

2018. 01. 10.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항지역(도서·접경) 개발사업’의 현장점검을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대표적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주도 소득창출 1’에는 경기도 포천시 ‘연꽃 평화 생태마을’이 선정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 중인 사업으로, 마을에 연꽃밭을 조성하고 관련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천 9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② ‘주민주도 소득창출 2’에는 강원도 인제군 ‘꿈이 있는 들꽃마을’로, 주민이 나서 꽃묘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꽃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마을을 조성 중이며, 2017년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판매로 1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③ ‘지역특화개발 1’에는 경기도 파주시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는 옛 집창촌(20포)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업으로, 집창촌 17,000㎡의 환경을 정비하고 일부 건물을 임대하여 전통 공방 및 전시관을 운영 중이며 주민이 직접 만든 8,800개의 전통 등을 시가지에 설치하여 빛 둘레길을 조성하였다. 1960년대 골목길은 ‘울곡문화 테마벽화길’로 다시

디자인하였다. ④ ‘지역특화개발 2’에는 강원도 춘천시 ‘평화 메모리얼 전망대’로, 미군 반환기지(캠프 페이지) 내 폐 물탱크를 재활용하여 물놀이시설과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7천 3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⑤ ‘지역 기반시설 개선’에는 강원도 철원군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이 채택됐다. 용화터널은 군부대 포사격장 피탄지인 용화동과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터널로 기존 1차선 터널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잦은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확장 사업을 시행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대표적 낙후지역인 접경지역과 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초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새뜰마을사업’으로 다시 해가 뜨는 해돋이마을

2018. 05. 03.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위원회, 부산 영도구는 부산 영도구 해돋이 마을에 ‘도시 취약지역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 맞춤형 수익사업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돋이 취약지역개조사업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청년단체, 복지사를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로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설명회, 정기회의, 게시판·소식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공·폐가를 활용한 순환형 임대주택 2개소를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한국해양대, 고신대)과 함께 집수리 교육을 이수한 ‘해돋이 집수리단’을 꾸려 노후불량주택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고령자·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주민돌봄 사업도 ‘건강’·‘일자리’를 테마로 하여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대학·병원과 연계한 ‘건강클리닉사업’은 주민 간 끈끈한 네트워크를 더해 어르신들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사업의 완료 시점인 올해 말까지 소방도로를 개설 및 상수도를 설치하여 화재·위생 등에 취약했던 지역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고령자 배려 골목길 정비, 재해방지 우수로 개선, 집수리, 청년밸리프로젝트 등을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해돋이 마을의 주거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위원회는 68곳의 도시 취약지역개조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사업단계별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 중이다.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에 공유·확산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민참여·집수리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 영도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진출처:천지일보)



공공시설물 및 매체

서울역에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들어선다

2018. 02. 18. |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구)서울역 민자역사의 일부 공간에 상업시설이 철수하면서 생긴 유휴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가귀속 민자역사(舊서울역) 유휴공간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공모대상 공간의 위치는 KTX서울역 뒤편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건물의 1층과 2층 일부이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 이내)를 받은 상태이다. 국가귀속 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자 새로운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보다 모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철도 승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 설치 방안을 4월 말까지 확정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철도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철도 역사(驛舍)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상·지하 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 2차사업 완료

2018. 03. 0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공간정보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상·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 2차사업’을 완료, 공공·민간포털 등을 통해 3월부터 개방할 계획이다.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은 지상·지하시설물 및 지형 등의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하여 도시기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도시의 시설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지상·지하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건물 설계나 각종 공사에서 조망권 분석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도시 조성 단계에 맞춰 지상·지하 시설물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① 1차 사업은 1~2생활권을 중심으로 구축한 바 있으며, ② 2차 사업은 1~4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상·지하시설물 추가 구축, 기 구축 지상시설물 현황화, 항공사진 촬영 등을 추진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복도시 전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시건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복도시가 미래 첨단 스마트 도시로 건설되도록 지속해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map.world.kr)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 및 도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 시행

2018. 01. 22. | 서울특별시 | 공공재생과

서울특별시가 공공건축물의 건축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 이후, 시공·준공·사후관리 등에 모두 참여하여 감리할 수 있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현재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사후설계관리업무)는 건축법·건축사법에 ‘사후설계관리’ 업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설계구현의도 업무’ 등의 이름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①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②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③ 시공상세도의 디자인 사항 검토·확인, ④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⑤ 시공 등 모니터링, ⑥ 인테리어 등 별도발주 디자인 업무 자문, ⑦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서울특별시는 디자인 감리제도 시행을 통해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초기 사업목적 및 설계 의도에 들어

맞는 건축디자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숲 북측 일대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추진

2018. 01. 30. | 서울특별시 | 주거재생과



▲ ‘붉은벽돌 마을’ 사업 대상지

서울특별시와 성동구가 붉은벽돌로 된 건축물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 ‘한옥’ 하면 복촌이 떠오르듯 ‘붉은벽돌’ 하면 성수동 지역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상징적인 지역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 주거지의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별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에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①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보조금 지원, ②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③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 붉은벽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 운영, ④ 벽돌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신축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가 검토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 는 붉은벽돌 건축물과 붉은벽돌 경관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것은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첫 ‘우수건축자산’ 체부동 성결교회, 생활문화센터로 재탄생

2018. 01. 31. | 서울특별시 | 건축부



▲ 체부동 성결교회

서울특별시는 최초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종로구 ‘체부동 성결교회’를 리모델링해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를 3월 초 개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문화재는 아니나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체부동 성결교회는 87년의 역사를 품은 근현대 건축물로 신축 당시 서울에서 보기 드문 프랑스식 벽돌쌓기로 넓은 공간을 조성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영국식 벽돌쌓기와 미국식 벽돌쌓기 방식을 적용하는 등 벽돌쌓기 방식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교회 예배당 동측 벽에는 유교적 관습에 따라 남녀가 따로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2개소)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으며, 지붕은 목조 트러스 구조로 근대 건축양식 그대로 복원하였다. 공연장으로 쓰이는 내부는 관객에게 정확한 음향을 전달하는 동시에 우수건축자산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다양한 방식의 벽돌쌓기를 적용했다. 한편, 공사 과정에서 1930년대에 민가에서 사용하던 꽃담이 한옥에서 발견되어 복원작업을 거쳐 원형을 보존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촌의 골목길을 근대 건축양식과 한옥이 잘 어우러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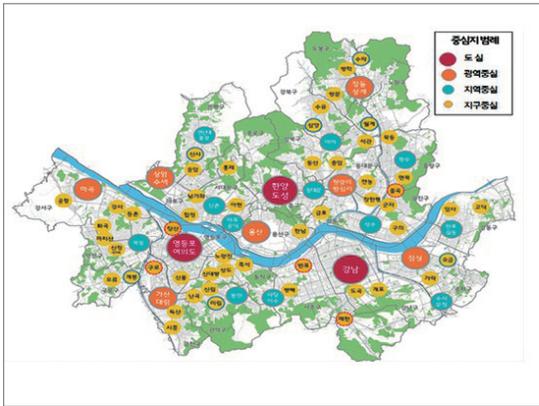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2018. 02. 14.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3월에 공모를 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계기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3억5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 및 자치구가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물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이 해당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요소를 관리기관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회도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시·자치구 공모를 거쳐 신청한 공공건축물 중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우선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건축물에는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사업대상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모범 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이 종료되면 운영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너지 사용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검증, 그린리모델링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신축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 성능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례가 확산되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우리동네 미래는? 116개 지역 ‘생활권계획’ 발표

2018. 03. 07. | 서울특별시 | 생활권계획추진반



▲ 생활권계획 중심지 체계

서울특별시가 ‘우리동네 미래발전 지도’에 해당하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4년 만에 최종 완성, 3월 8일 자로 공고하고 본격 가동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3~5개의 동 단위)’으로 세분화해 총 493개 목표와 1,126개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7개 이슈 ① 도시공간, ② 산업·일자리, ③ 주거정비, ④ 교통, ⑤ 환경·안전, ⑥ 역사·문화·관광, ⑦ 복지·교육로 제시했다. 또한,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조사·분석해 어린이집,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각 권역·지역별로 설치가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11개 분야로 제시했다. 이중 권역 생활권은 자치구별로 서울특별시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시설을, 지역 생활권은 ①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② 보행 10분 거리, 반경 800m 이내에 없는 시설, ③ 서울특별시 평균보다 보급률이 낮은 시설이라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을 우선 확충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는 생활권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향후 서울특별시의 모든 관련 하위 계획(법정·행정·도시관리)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심의 과정을 거치고, 실행과정 중에도 생활권계획 반영 상황을 진단·평가해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구상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담은 만큼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네마테크(가칭)’ 국제지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2018. 03. 12.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반



▲ 서울특별시네마테크(가칭) 설계공모 당선작

서울특별시가 총무로에 조성할 복합영상문화시설 ‘서울특별시네마테크(가칭)’의 설계 밑그림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네마테크는 비상업 독립·예술영화는 물론 고전 영화까지 상업적 이해와 관계없이 다양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징적 시설이다. 현재 중구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2021년 2월 개관이 목표다. 서울특별시네마테크에는 대·중·소 규모(150석~300석)의 ‘다양성영화 전용 상영관’이 들어선다. 핵심 시설은 ①(옥상) 150명 정도 수용 가능한 노천극장, ②(지하 1~2층) 서울특별시네마테크에서 가장 크고 폭이 넓은 300석 규모의 대극장, ③(지상 2~3층) 150석 규모의 소극장, ④(지상 5~6층) 200석 규모의 중극장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녹음실, 색보정실, 대여 장비창고 등을 갖춘 ‘영상미디어센터’, 최대 180명까지 수용 가능한 가변형 강의실, 보존 가치가 있는 영화 필름 등을 보관·열람할 수 있는 ‘영화 아카이브(자료보관소)’도 각각 들어선다. 특히, 영화 아카이브는 단순 자료실 개념이 아닌 극장 성격을 띤 이색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카페, 서점, 기념품 가게 등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전망형 승강기를 설치해 남산을 조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3월 중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서울특별시네마테크 건립과정에 참여해온 영화계 인사들로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계단계부터 공간별 기능과 시설 운영방식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2018 공공 디자인 시민공모전’ 개최

2018. 03. 14.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는 서울 주요 명소 등에 설치할 벤치·의자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2018 공공디자인 시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벤치·의자 디자인을 공모하고, 제출된 디자인을 활용성, 창작성, 조화성, 심미성, UD원칙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상은 총 61개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수상자에게 총 2천 5백만 원의 상금과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품은 실물로 제작하여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도심재생 사업으로 ‘리관유 세계 도시상’ 수상

2018. 03. 16. | 서울특별시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다시세운상가

서울특별시가 올해 ‘리관유 세계도시상(Lee Kuan Yew World City Prize)’ 수상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리관유 세계도시상은 살기 좋고 활기차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를 해마다 선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스페인 빌바오(2010), 미국 뉴욕(2012), 중국 수저우(2014), 콜롬비아 메데인(2016)에 이어 5번째 수상 도시가 됐다. 서울

특별시는 보행 재생(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역사문화 재생(청계천 복원), 산업 재생(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시민 참여로 추진한 도심재생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 도시로 선정됐다. 수상 도시 선정은 각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사무국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리더십, 전략·실행방법의 창의성과 혁신성, 타 도시 적용 가능 여부, 계획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상식은 오는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개최된다.

서울특별시,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018. 03. 22.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는 쾌적한 도심지 환경을 위해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2018년도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 계획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으며, 응모자격은 5년 이상 지난 노후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담할 수 있으면 된다. 사업비는 소유자와 자치구가 각각 10% 이상 부담하며,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는 노후된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삶을 운터하게 만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신축 대형 건축물 태양광발전 의무화 진행

2018. 03. 28. | 서울특별시 | 환경정책과

앞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일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인 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현행 친환경 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 등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물의 일조 시간, 구조,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 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왔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친환경에너지 마을’ 4개소 조성

2018. 01. 15. | 부산광역시 | 클린에너지추진단

부산광역시는 마을단위 단독(공동)주택 4개소 총 355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 총 240kW를 설치, 시민이 직접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친환경 에너지 마을 조성을 완료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시범사업 ‘친환경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마을 단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가정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의 공동체는 부산광역시에서 교부받은 사업비로 공사입찰과 공사업체 선정, 준공을 직접 진행하여 마을 내 주택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이번에 조성된 친환경 에너지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전기요금 절감 등의 효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마을 안내 현판을 설치하여 마을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2018. 01. 19.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부산광역시는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복도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마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며, 주요 내용은 ① 서구 꽃마을 주거지 경관개선사업(마을 심터조성, 보안등, 맨홀정비 등), ② 서구 시약마을 녹지환경 조성사업(계단식 공원 조성, 골목길 정비), ③ 사상구 구덕마을 주막거리 조성 사업(상징게이트 2개소, 도로정비 등), ④ 사상구 보부상 테마길 조성(옹벽 경관개선, 야간테마거리 조성), ⑤ 사하구 건축체험 마을 만들기 사업(폐공간 건축체험공간 조성), ⑥ 사하구 마을 옹벽 스토리로드 조성 등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마을 활동가를 투입해 주민협의회의와 협업하여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발굴하였으며, 인근 대학과 주민이 함께하는 ‘까치마을 건축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마중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왔다. 올해는 주민과 마을활동가, 전문가가 함께 발굴한 17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8차년도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산복도로 야경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주최로 도시건축 문화 자산 투어 실시

2018. 03. 02. | 부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부산광역시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주최로 3월부터 매주 주말에 센텀 건축, 문화벨트건축, 원도심건축 3개 코스에서 건축문화해설사와 떠나는 상설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를

실시한다. 이는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건축문화 자산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투어의 해설사는 부산광역시가 2014년 전국최초로 ‘건축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양성한 전문 해설사가 맡는다. 전문 해설사는 부산광역시의 건축문화해설을 전담하여 수준 높은 도시건축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투어 3개 코스를 개발하고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부산건축미학 여행을 기다려온 시민의 갈증을 해소했다. 투어는 상설 정기투어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약 3시간가량 진행된다. 투어는 투어희망일 3일 전까지 3명 이상 참가시 진행된다. 한편, 부산건축제는 건축문화의 저변확대, 국제교류활성화, 전문인양성을 통해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인이 함께 도시건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공공적 성격의 열린 조직이다.

부산광역시, 노후 소규모주택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 시행

2018. 03. 08. | 부산광역시 | 도시정비과

부산광역시는 노후 소규모주택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주민 합의를 통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이는 ‘맞벽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 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주차장 완화, 사업비의 50~70% 이주비용의 용자를 지원하고,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차후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전역에 걸친 수요조사로 선정된 사업대상지를 주민합의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하여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되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부산광역시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셉테드(CPTED) 사업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 대책 수립

2018. 03. 08. | 부산광역시 | 도시경관과

부산광역시는 셉테드 행복마을 사업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시와 경찰청, 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긴급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는 2013년도부터 매년 3~4개소씩 19개소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시행했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2014년도 16개소 셉테드 행복마을과 2017년도 3개소에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19개소의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중 초기에 진행된 셉테드 행복마을 사업 지역의 벽화 훼손, 안심벨 파손, 공·폐가 관리 등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경찰청은 전체 셉테드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자 실무회의를 3월 7일 개최하였다. 이후, 실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긴급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유지보수가 시급한 사업지역은 우선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구·군과 협조하여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도시환경정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부산’ 만들기 추진

2018. 03. 20. | 부산광역시 | 자치행정담당관

부산광역시는 글로벌 도시 부산에 걸맞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 만들기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세부 계획으로는, ① (도시의 첫 이미지가 각인되는 역·공항·터미널 등 주요관문 지역 집중정비) 4월 말까지, 관문지역 집중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시와 구(군),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문지역 환경정비의 날을 별도로 잡아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시행할 계획, ②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불법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정비)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불법유동광고물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③(도시환경을 상시로 점검할 수 있는 길 모니터 확대운영과 시·구·군 환경순찰반 ‘클린부산 기동365’의 순찰 활동 강화) 보행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보행개선 아이디어 및 불편사항을 직접 듣는 ‘부산의 길’ 시민 모니터를 확대 운영한다. 부산광역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로환경에 대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쓸 예정이며, 국제 관광도시 부산에 걸맞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5개 마을로 전국 최다 선정

2018. 05. 02. | 부산광역시 | 에너지산업과

부산광역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에 부산지역 내 에너지자립마을이 전국 최다 규모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에 선정된 지역은 부산 강서구 상방, 북동산, 방근마을, 금정구 조리마을 기장군 월평마을 등 5개 마을로, 전체 26개 마을 중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대로 5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는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보급된 마을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선정 마을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조금·설치용자금 우선지원,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추천, 교육홍보자료 및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수혜 자격을 얻는다. 부산광역시는 친환경 에너지 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에너지자립마을 등도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심사를 신청해 마을 단위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커뮤니티 거점 공간과 행복주택 제공하는 도시재생 ‘행복빌리지’ 조성

2018. 02. 13.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는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건축물 ‘행복빌리지’로 조성한다. 행복빌리지는 서구 비산5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 공공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에 준공된다.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① ‘커뮤니티 거점 공간’은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앵커 시설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맡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② ‘주거시설’(40세대)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행복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며,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에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원도심의 토지 이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청년층의 거주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인구가 원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행복빌리지 조감도



대구광역시, 기존 한옥 보존 및 한옥건축 장려 위한 ‘한옥진흥사업’ 지속 시행

2018. 02. 14. | 대구광역시 |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는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건축을 장려하여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옥진흥사업’을 시행한다. 한옥진흥사업은 ‘대구광역시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대상으로,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전면 수선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비용 지원은 한옥등록 후 대구광역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한옥보호지역 2개소를 지정 공고했고, 한옥등록 57개소, 한옥 30개소에 8억 7천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한옥 소유자와 신축한옥 건축주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대구광역시의 총 한옥 수는 10,754개소(국가한옥센터 조사, 2013년)이며, 그중 A등급 한옥은 948개소로서 중구와 달성군의 비중이 높다. 대구광역시는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한옥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의 보존과 새로운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62번지 한옥(주택) 수선 후 전경



인천광역시, 사람과 장소, 지역자산을 활용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계획

2018. 01. 12. | 인천광역시 |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는 사람과 장소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고르게 발전하는 인천’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사회를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도시 재생뉴딜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원도심과 신도심이 서로 상생하며 고르게 발전하는 인천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① (사람과 장소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기 발전 방향, 개발지표 등을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 및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복규제 해소,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관리해 나갈 계획, ② (수요자 중심의 조화로운 도시개발) 역사·문화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시민이 필요하고 만족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역세권 주변을 복합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및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 ③ (따뜻한 삶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시민이 공감하는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가계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할 계획, ④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도시디자인 조성) 시민이 쉽게 체감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서 지역 등 잠재적 경관 가치를 발굴하고 특화된 경관 형성방안을 마련하여 도서 경관 관리체계 구축과 경관 형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그간 여건변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우선 해결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하는 도시’로 발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인천광역시,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추진

2018. 03. 21. | 인천광역시 | 주거환경과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구역 내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마을주택 거주민의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와 유사한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마을 주택 관리소는 ① 전기, 상·하수도, 목공, 도배 등 지원 가능 범위의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 보수를 위한 공구 지원, ②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환경 정비, ③ 공동체 모임 구성 및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꾸리기, ④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줄곧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지원요청 사항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만족시키기 위해 마을 주택 관리소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실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천광역시, 첨단기술 적용된 스마트 포용도시 위해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추진

2018. 03. 21. | 인천광역시 | 도시재생과

인천광역시는 곳곳에 공원과 주차장이 있고 첨단 안전시스템으로 사고가 없고 문화와 4차 산업이 함께 숨 쉬고 발전하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 인천대로 J프로젝트, 개항창조도시, 북부권역 체계적 개발, ② 원도심 경제 기반조성: 원도심 혁신지구 지정, 전통시장의 재탄생, 원도심 고유 킬러콘텐츠 개발, 포용경제의 거점 도약, 경제산업 공간의 재탄생, ③ 원도심 생활여건 획기적 개선: 주거복지 정책추진(뉴스테이, 행복주택, 우리집 1만호, 빈집 행복 채움 프로젝트, 도시정비사업)과 생활편의 개선(주차난 해소, 문화공간 확대, 공원·녹지공간 확충, 원도심 도시농업 활성화, 안전하고 스마트한 원도심 구축,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한 경관개선)이다.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에 5년간 총 3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조직으로 ‘원도심 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시민,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이 모인 ‘범시민 원도심부흥추진위(가칭)’를 구성해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개항창조도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조감도



인천광역시, 폐창고 활용한 문화 혁신공간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운영사업자 공모

2018. 04. 16. | 인천광역시 | 도시재생과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이며, ‘인천 개항창조도시’의 선도사업인 ‘상상플랫폼조성’의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폐창고를 활용한 상상플랫폼은 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 촬영 및 공연 특화 등 문화·관광시설을 갖춘 최첨단 4차 산업기반 문화 혁신공간으로, 창의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안받는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창업도 지원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할 사업자 공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역 영향평가대부(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폐창고는 지난 1978년 전국에 곡물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기둥과 내벽이 없는 단일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치되어 40여 년간 운영되었으나, 항만재개발계획에 따라 기능이 폐쇄되어 2016년 4월부터 방치됐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공간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전국 유일의 독특한 테마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 채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내부 구조를 가변형으로 설치하여 사계절, 주중·주말, 테마형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상상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과 국내·외 관광객이 서로 교류하여 문화를 가꿔나가는 인천만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보육시설 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등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집중, ‘어린이 안전, 광주광역시가 지킨다’

2018. 01. 04. | 광주광역시 | 교통정책과

광주광역시가 올 한해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요 내용으로 ①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오염으로부터 실내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당 1~2대씩 총 1614대를 설치한다. ② 통학 차량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통학 차량 간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작

감지센서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③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④ 보육 교직원에게 각종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문제 등에 경각심을 갖도록 다양한 안전교육·예방교육을 강화한다. ⑤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리를 일상화하고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현장 컨설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16곳에 보호구역 표지판, 보·차도 분리, 과속방지턱, 칼라포장, 횡단보도 설치 등의 사업을 벌인다. 또한, 5개 자치구 초등학교 주변 76곳에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신호위반을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는 주변의 작은 문제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역사 간직한 건물 리모델링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

2018. 03. 05. | 광주광역시 | 문화도시정책관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전일빌딩에 시민 참여 플랫폼인 ‘시민플라자’가 조성된다. 광주광역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2016~2017년 촛불항쟁을 오롯이 지켜온 전일빌딩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 시민플라자 조성 아이디어 공모와 자유토론 형식의 해커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광주시민의 참여와 연대라는 광주공동체 정신과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해 진행된다. 당초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계획은 시민 편의를 위해 1968년 건축돼 가장 노후한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총탄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5·18사적지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원형을 지키자는 의견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됨에 따른 후속 추진 내용이다. 공모 주제는 ‘시민플라자로 제공될 전일빌딩 1층부터 4층까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칭)’이며, 국비와 연계돼 기존 구상이 완료된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전일빌딩의 단순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민주화의 상징인 전일빌딩을 시민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플랫폼이라며, 사회변화의 주역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시민플라자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주거취약계층 노후 불량주택 무상수리하는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 추진

2018. 04. 19.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는 올해도 ‘행복한 목수 봉사단’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집을 무료로 수리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에도 독거노인, 장애인, 요보호 아동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이주노동자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3월에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집수리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현장실사를 거쳐 40가구를 목표로 이달부터 집수리에 들어간다.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시비로 자재비 등을 지원하고, 행복한 목수 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행복한 목수 봉사단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원 업체와 중흥동 건축자재 특화의 거리 상인회, 광주재능기부센터 자원봉사자,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선도사업 대상지 3곳 선정

2018. 03. 02.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 대상지로 동구·중구·유성구 3곳을 선정했다. 사업대상지는 셉테드와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됐다. ① 동구의 ‘기차길옆 꽃빛 길 조성사업’은 대전역 북측의 정동 창조길에 꽃길, 파사드 정비, 아트조명, 안내판 설치, 야간경관조명 개선을 통해 노후된 대전역

주변 환경을 보완,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중구의 ‘함께 만드는 과례로 주변 범죄예방 솔루션’은 충남대병원 남측 주거지역에 미니쉘터, 보안등, CCTV, 여성 안심 거울, 고보 조명 등을 설치하고 가스배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 불안요소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유성구의 ‘별빛이 내리는 밤’은 유성온천로 주변의 공원과 도로에 경관조명, 파고라, 운동기구,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야간범죄 발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사전조사 및 경찰청 CPO(범죄예방 진단팀)의 프로파일링 분석 및 생활 안전지도를 근거로 선정돼 사업 완료 후 범죄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는 셉테드 기법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018. 03. 21. | 대전광역시 | 주택정책과

대전광역시는 앞으로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혁신성장촉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계획으로 ①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여, 심의 1회 통과 원칙을 확립하고 심의조건을 객관화하며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 이상 확대 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 이상 지속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③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 전담공무원이 One-Stop으로 행정처리를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

이며,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을 준비 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도시·건축 행정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대상 셉테드(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합동 교육 실시

2018. 03. 26.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전국최초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하는 셉테드(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합동 교육을 개설하고,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에는 대전광역시, 5개 구청, 대전경찰청, 6개 경찰서, 보호관찰소, 소방 등 셉테드 관련 분야 공무원 35명이 참여했으며, 셉테드 이론, 관계기관 협업 네트워킹, 셉테드 사업지 견학 등 셉테드 전문 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전광역시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의 관·경 협업 네트워크 교육을 통해 셉테드 실무에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3개소 셉테드 사업에 대하여 분임토의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셉테드 정책추진 방향을 도출하는 등 실무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대전광역시는 앞으로 셉테드 선도사업뿐 아니라 도시재생, 아파트 건축, 택지개발 등의 초기 단계부터 셉테드를 도입하여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공장 대상 ‘2018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2018. 04. 09. | 울산광역시 | 도시창조과

울산광역시는 공동주택과 공장이 재도색할 경우 색채 시공도안과 적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2018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공장의 특성상 브랜드가 취약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단순 도장에 그치는 실정을 고려하여, 시의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울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개별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울산 소재 준공 후 5년이 경과된(2012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국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공장이며, 도장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디자이너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와 브랜드 분석 등을 통해 색채디자인을 연구·개발하여 시공이 가능한 설계 도안을 제안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산 색채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도시공간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선호를 토대로 선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하였다.

▼ 지원사례 - 도색 전(좌), 도색 후(우)



경관 및 공공공간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도시재생 통해 녹색 시민 공공 문화 공간 조성

2018. 04. 02.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옥수역 고가하부가 도시재생을 통해 녹지가 어우러진 도심 숲으로 변신, 녹색 시민 공공문화 공간으로 돌아왔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수립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종합계획’ 1호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다락(樂) 옥수’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다락(樂) 옥수’는 고가 밑에 지붕과 같은 슬로프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조경과 녹색공간으로 채웠으며, 하부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북카페, 문화강좌 등으로 활용한다. 외부는 공연·관람석도 새롭게 만들어

기존 방치돼온 광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특히 지붕 형태의 슬로프 하부 다목적 문화공간 내에 ‘프리가든’을 선보인다. 태양광 집광시스템으로 빛을 내부로 끌어모아 식물을 생육하는 태양광 신기술로서 뉴욕시 로우라인에서 선보인 방식이다. 이는 반사거울시스템이 태양광을 고밀도로 집광하고 목표지점까지 보내 식물을 생육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성동구가 함께 추진했다. 서울특별시는 공간 설계 및 예산을 지원, 성동구는 공사 담당 및 시설 운영을 맡아 향후 지역 주민, 조경전문가, 생활문화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다락 거버넌스’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어린이 대상 태양광 기술 원리체험, 식물 생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맞춤형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목적 문화공간은 주민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교육, 생활문화 동아리 행사, 구민이 함께하는 소통·휴식 공간, 워크샵·커뮤니티 모임을 위한 대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내년에 이문고가 하부공간도 공공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며, 옥수에 이어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만들어 향후 서울특별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방치돼 왔던 옥수역 교량·고가 하부공간이 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가하부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유휴부지 등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재생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다락옥수 외부전경



서울특별시, 세운상가군 도시재생 ‘다시세운 프로젝트’ 거점공간 개관

2018. 04. 09. | 서울특별시 | 역사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는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사업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운전자박물관, 테크북라운지, 세운인라운지

등 다양한 거점공간을 4월 10일 개관했다. 세운전자박물관은 첫 번째 상설전시로 ‘청계천 메이커 三代記’를 기획, 세운상가와 청계천 일대의 가치있는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실제 세운상가에서 활동한 인물의 인생을 바탕으로 전자기술의 세대 변화를 하나의 공간에 재현하였다. 전시는 잠시 자리를 비운 기술장인, 메이커의 작업공간에 초대된 콘셉트로 세대별 메이커들의 작업공간과 도구, 주요 전자제품과 개발품을 전시하였으며, 특히 청계천과 세운상가 일대의 특징을 ‘판매-수리-조립-복제-개발’에 이르는 기술문화의 축적으로 보고, 오래된 제작자 문화와 새로운 메이커 문화가 공존하는 현재의 세운상가와 지향점을 담았다. 아울러 창의적 영감을 불러 넣을 최신과학 기술서적과 DIY 관련 서적들을 열람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세운테크 북라운지’와 상인·제작자들의 작업 및 협업 공간으로 활용될 ‘세운인 라운지’도 함께 개관했다. 서울특별시 이번 세운전자박물관 개관을 통해 세운상가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거점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이번이 기회를 통해 다시세운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세운전자박물관



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 활용한 ‘복합생활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2018. 04. 18. | 부산광역시 | 도시경관과

부산광역시는 수영고가교 하부에서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은 1980년 고가도로 건설 이후 소통이 단절되고 낙후된 환경의 수영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영고가도로 하부의 경관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 역사 문화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화, 유휴공간의 복합 생활문화공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는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① 2016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신청, ② 2016년 11월에 대상사업 선정 후 2017년 설계를 시행하여 부지 16,000㎡, 연면적 1,997㎡, 2층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계획, ③ 2018년 올해 첫 삽을 뜨고, 2019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다. 부산광역시는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산 도심의 공공 유휴공간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복합생활문화공간’ 조감도



인천광역시,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을 매입하여 문화 공간으로 조성

2018. 01. 23. | 인천광역시 |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는 옛 동인천등기소 건물로 이전한 인천문화재단에서 이전식을 개최하고, 이와 함께 새로 단장한 인천음악플랫폼의 개관식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는 개항장에서 유일한 민족자본 은행의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 자리에 들어선 동인천등기소 건물을 작년 8월에 매입하여 문화재단 청사와 인천음악플랫폼으로 조성하였다. 조선상업은행은 개항기 일제 자본에 맞서기 위해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명칭이 바뀐 역사를 갖고 있다. 새로 개관한 인천음악플랫폼은 개항기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서양음악부터 현재까지의 인천음악 역사와 인천연고의 음악가들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아시아 음악의 중심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천광역시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전시 및 상설 음악감상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각오와 자긍심을 가지고 인천의 문화가치를 빛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문화재단 청사로 사용했던 옛 인천우체국 전화와 건물은 한국근대문학관 별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인천광역시, 항만재개발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용역

2018. 02. 12. | 인천광역시 | 도시재생과



▲ 인천광역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구상도

인천광역시는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을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 금번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까지 포함하는 여의도 1.5배 크기로 다른 지역의 항만재개발과는 차별화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도시개발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가 참여하여 투자유치 방안, 미래비전 및 컨셉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마련과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3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지자체 및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내항과 주변 지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기존 항만물류 중심에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새롭게 바꿀 계획이다. 특히, 인천 내항의 조속한 항만재개발을 위해 1·8부두를 우선 착공(2020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인천 내항 전체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거점으로 원도심 재생 효과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인천광역시, 지역 맞춤형 디자인 보급하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4차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2018. 04. 19.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 인천광역시 '달빛마을'

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스토리텔링으로 맞춤형 디자인을 보급하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4차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신·원도심이 조화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희망 인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모두 3개소로 각각 안심마을, 보호수 삼지 숲, 내가면 관광활성화 등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범죄예방, 안전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추진하였다. ① 남동구 구월1동은 달빛마을로 브랜드하여 골목길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성안심마을 조성'이라는 목표로 디자인을 개발했다. ② 계양구 계산1동은 600년 이상 오래된 보호수 주변을 삼지 숲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마을 쉼터로 꾸며진다. 기존에는 어둡고 지저분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으나 깨끗하고 밝은 디자인과 개방적인 분위기로 뒤바뀌어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③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일원은 '대한민국 올해의 관광도시' 발표를 기점으로 저수지 주변 둘레길과 인근 주거지를 연결하여 관광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특히 진입로 주변 방치되었던 공·폐가를 정비하여 지나가는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변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는 4월 말까지 디자인을 완성하여 군·구에 전달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2018. 01. 12. | 광주광역시 | 공원녹지와

광주광역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계량평가 실시 후 이틀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계량평가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협상을 거쳐 공원의 기능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 접근성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성 확보 및 1단계 협상기준(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협상단을 구성,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불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 중반기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 밖에도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6개소 대상지에 대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안공고를 낼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경관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봉계경관단지 조성 지원사업’ 추진

2018. 03. 28. | 울산광역시 | 농축산과

울산광역시시는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봉계경관단지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우불고기 특구와 연계한 경관단지 조성을 통하여, 봉계한우축제 및 가을꽃 축제에 참석한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촌 관광 및 도농 교류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세부 추진 일정은, ① 춘계(5월 초)에 경관 작품(수단그라스)을 파종, ② 하계(7~8월)에 작물 수확과 동시에 가을꽃(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등)을 파종, ③ 9월 말~10월 초 한우불고기 축제 기간에 개화토록 경관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로써 가을꽃 축제를 봉계 불고기축제와 연계하여 경관을 구성하면 경관단지 내 바람개비, 워낭소리길 등도 탐방로와 어우러져 외부 도시민 등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울주군 두동면 봉계 일원의 봉계경관단지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며 울산광역시시는 경관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타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시는 이번 봉계경관단지 조성사업이 농촌과 도시민 모두에게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마을 만들기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 주민·활동가 34명 ‘마을강사’로 육성

2018. 01. 25. | 서울특별시 |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실제로 참여해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주민과 마을 활동가를 마을강사로 발굴·육성하여 다른 마을을 돕는 민·민 협업 시스템을 만든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특별시가 2011년부터 시작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 대상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민주도의 사업인 만큼 선행마을의 활동과 경험, 노하우를 직접 전파한다면 선행마을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마을 강사를 육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주거환경관리사업 77개 마을에서 활동 중인 주민,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마을 강사 예비자를 모집한 결과, 20개 마을에서 34명이 신청했다. 사업에 대한 실무적 지식은 있으나 강의 경험이 없는 예비 마을 강사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4개월간 강의기술을 교육한다. 마을 강사들은 앞으로 77개 마을 중 주민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했거나 주민공동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정기 강연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는 선행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후발마을 주민들에게 본인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한다면 주민들의 공감을 극대화하여 사업의 지속

성이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마을 강사를 통해 민·관의 협업을 뛰어넘는 민·민 간 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2018. 02. 06. | 서울특별시 | 한옥조성과

서울특별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과 은평 한옥마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한옥 또는 한옥마을의 역사적·문화적·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또는 단체,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주민 모임형, 학교 연합형, 마을 특화형 총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제안된 사업은 자치구 현장 방문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등을 종합해 심사·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마을 활동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선정 후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정보 공유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중 온라인은 서울 한옥포털 내 '한옥마을 사업 소통방'을, 오프라인상에서는 북촌마을 서재 내에 있는 '북촌 주민사랑방'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활동가는 사업계획 컨설팅에서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절차, 사업 진행, 회계처리 지원 및 사업 정산 등 행정과 주민 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서울특별시는 한옥마을이 주거공동체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옥에 담긴 아름다움과 지혜를 재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 '면목동 공동체 주택마을' 사업설명회 개최

2018. 04. 10. |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책이 테마인 공동체주택 마을을 조성·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한 '면목동 공동

체주택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책 테마의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은 책과 관련된 상징, 공공시설과 결합한 여러 필지의 공동체주택이 건설되고, 책 테마에 맞추어 인근 도서관 거리(중랑구 '책 읽는 거리')와 연계하여 주거와 문화가 복합된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거리 디자인도 개선할 계획이다.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은 영국의 코인스트리트 사례를 도입하여 인근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사업주체가 관리·운영하여 단일 공동체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은 인접하여 건축되는 여러 필지의 공동체주택이 마을을 이루어 각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이 함께 교류하며 단일 주거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에도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종합 계획과 디자인 지침 범위 내에서 마을 단위의 여러 필지와 다양한 용도에서 발생하는 수익구조(상가, 커뮤니티 시설 등)를 통합 운영주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통합운영주체 선정 공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통합운영주체 선정 공모 절차와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공동체주택 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단일 건물의 공동체주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러 개의 공동체주택이 마을을 이루어 입주민 간 다양한 교류가 가능한 새로운 주거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2018년 신규 행복마을로 16개 마을공동체 최종 선정

2018. 01. 09.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20개 예비대상지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2018년 신규 행복마을 선정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시행하였다.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예비대상지를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여 원활한 마중물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최종 심사

에서는 신규 행복마을 수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16개 신규 행복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6개 마을공동체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의 이해도 증진 및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대학과 마을비전 수립을 위한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향후 신규 행복마을은 3년간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민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취약계층 복지지원 활동, 마을 일감 추진, 공동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선정된 행복마을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가를 배치하고, 마을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낙후 주거지역 통합재생 사업 ‘2018년 신규 행복마을 워크숍’ 개최

2018. 04. 10.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부산광역시는 ‘2018년 신규 행복마을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낙후된 지역 중 마을단위의 주민 공동체 회복을 통해 주민 주도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의 공간적 재생, 문화적 재생, 경제적 재생을 추구하는 낙후 주거지역 통합재생 사업이다. 즉,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비전과 같이 ‘함께 어울려 계속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 3개에 비해 신규 행복마을 수를 대폭 확대하여 총 16개 신규 행복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 보다 많은 마을공동체에 도시재생사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8 신규 지정된 행복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명하고, 기존 마을 답사를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며, 사업추진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신규 행복마을 워크숍을 계기로 행복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역량 강화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대구광역시,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2곳 추가 공모

2018. 02. 07. | 대구광역시 | 안전정책관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안전위해 요인을 발굴하고 마을안전계획을 수립·개선하며, 더불어 행정기관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선진안전기법을 도입하여 범죄예방 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이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부터 10개 안전마을을 조성은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3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마을은 추진 중이며, 이번에 2개 마을을 추가 공모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동네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였고, 주민의식·동네에 대한 선호도·동네 평판 모두 향상되었으며, 위험지역의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ED 보안 등 교체, CCTV 설치 작업을 진행한 마을은 저녁 및 야간시간대 안전도 평가와 조명평가에서 사업시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가 지정된 2개 마을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걸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인천광역시, 원도심 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하는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업무 협약식 체결

2018. 04. 10. | 인천광역시 | 지역공동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신한은행이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업무 협약은 원도심 내 위치한 학교의 빈 교실,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 교사,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마을의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이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① 학교 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② 지역과 학교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③ 학교와 마을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등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어울터가 조성되면 학생들의 방과 후 취미활동 독려는 물론 교과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공방 등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마을공동체 공간이 마련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금년도 추진성과,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위한 ‘2018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시행

2018. 03. 14. | 광주광역시 | 지역공동체추진단

광주광역시는 지난 12일 ‘2018년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미디어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① ‘마을교육공동체’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협업해 다양한 배움터를 제안한 38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들 마을에는 지난 2월 완료된 ‘광주마을교육공동체 모델 정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광주다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②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은 8개 마을에 4억2천만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주민들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간 조성은 마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직접 수요에 맞춰 설계하는 ‘디자인스쿨’을 거쳐 마을방송국, 영화관, 마을갤러리, 마을 쉼터 등으로 꾸민다. ③ ‘마을미디어’ 사업은 마을을 기반으로 미디어 활동을 벌여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인식·공유하고 마을 문제를 소통하는 방식이다. 5개 단체에 5천만 원이 지원되어 마을기자단 양성, 소식지 제작, 신문 및 라디오 등 미디어 활동을 전개한다. 광주광역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마을공동체가 회복되고, 이웃 간 정이 넘치는 광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마을 내 유휴공간을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

2018. 03. 19. | 광주광역시 | 지역공동체추진단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침체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간뎨골 사랑방’을 20일 개소했다. 간뎨골 사랑방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주민센터 등 관내 주요 기관이 함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찾던 중, 한 주민이 중흥2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등과 인접한 유휴공간을 제공하면서 사랑방 조성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들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기로 하고 수차례의 주민 회의를 거쳐 완성된 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마을 내 유휴공간은 전문 건축사와 마을 주민이 함께 디자인스쿨을 운영하여 주민 수요가 반영된 공간이 완성됐다. 조성된 공간은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안이고 커뮤니티 공간은 그 활동의 중심이라며, 올해도 8개 단체에 4억2천여만 원을 지원해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녹색도시 동네 공동체 만드는 ‘다가치 그린 동네만들기 공모사업’ 공동체 및 학교 선정

2018. 03. 26. | 광주광역시 |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8년 다가치 그린 동네만들기 공모사업’으로 30곳에 1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다가치 그린’은 시민이 직접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고(다가치)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여(다같이) 녹색도시 동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Green) 브랜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시민 주도형 동네 환경개선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힘입어, 올해부터 환경은 물론 사회, 도시 재생 등의 ‘광주 지속가능발전’ 5차 의제를 마을 속에서 뿌리내리는 생활 실천사업으로 확대하여 공동체 부문, 학교 부문 사업을 실시한다. ① 공동체 부문 선정사업은 자원순환 분야에 조우공동체 ‘이웃과 함께 녹색마을 만들기’ 외 5곳, 시민주도 동네환경개선 분야에 수완장자울마을 휴먼시아 4단지 ‘푸른 마을을 스케치하다’ 외 3곳, 도시숲 분야에 떼굴떼굴탐험대 ‘백석산에서 떼굴떼굴’ 외 3곳 등 6개 분야 22곳이다. ② 학교 부문은 인강중심 교통환경 분야에 광주농성초등학교 ‘함께 걸어요, 다가치 안전한 길’ 외 3곳, 도시숲 분야에 울곡초등학교 ‘밤골 생태 탐험대’ 외 1곳 등 4개 분야 8곳이다. 공모사업은 주민과 학생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쓰레기 투기 지역을 신고하거나, 마을 환경교육 및 캠페인 등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모아 사업비로 바꾼 뒤 마을과 학교 등에서 실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다가치 그린 동네만들기’가 마을과 학교 곳곳에서 활기차게 펼쳐져 행복한 광주공동체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민관 협업사업 ‘안심마을 만들기’ 3개 마을 선정

2018. 02. 08. | 대전광역시 | 안전정책과

대전광역시는 주민주도형 민관 협업사업인 ‘2018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업대상지 3개 마을을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며, 총사업비 6천5백만 원 중 동구 가양2동에 2천만 원, 서구 도마2동에 2천백만 원, 만년동에 2천5백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① 가양2동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에 안심 보행자 통로 조성 및 노후 과속 방지턱 보강 등 어린이 안전 위험요소 개선, ② 도마2동 구도심 내 고령인구 거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좁거나 경사가 심한 골목길 부근에 제세동기 비치 및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난간 설치와 각종 생활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③ 만년

동의 우범지역인 어린이 공원 내 벽화그리기, LED조명 설치 및 공동주택 주민갈등 개선을 위한 행복배달판 설치 등 마을의 안전 위험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주민 스스로 안전공동체를 구축해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 ‘2018년 주차환경개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5개 사업 선정

2018. 02. 08. | 대전광역시 | 운송주차과

대전광역시는 ‘2018년 주차환경개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서구 만년동의 ‘행복 주차 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시비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공모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형 주차장 공급이나 단속 및 계도가 아닌, 주민들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인식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마을단위 주민자치형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법적으로 기획됐다.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5개 단체(동구 대동 주민자치위원회, 서구 만년동 주차환경개선 마을공동체, 대덕구 비래동 발전협의회, 석봉동 행복지킴이, 덕암동 주차환경개선 마을공동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지역 내 부설 주차장 개방, 자투리땅을 활용한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없기,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등 기존의 무질서한 주차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주차문화 운동 등을 추진한다. 대전광역시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울산광역시, 주민이 직접 범죄 및 재난에 대비하는 ‘2018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5곳 추진

2018. 04. 24. | 울산광역시 | 안전정책과

울산광역시는 ‘2018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읍면동의 자생단체 등을 통해 ‘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를 구성,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마을의 범죄·재난 등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매년 5개소 총 20개소가 선정돼 관리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시는 지난 2월에 공고, 3월에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 마을에는 범죄 및 화재 안전 취약지구에 방범용 CCTV, 비상벨, 보안등, 고보라이트,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옐로카펫, 반사경, 태양광 표지병 등을 설치한다. 또한, 환경이 낙후되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골목길 도색, 주택 노후 담장 보수, 벽화 그리기 등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 환경을 만든다. 울산광역시시는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선정 마을에 대한 유지·보수 등 안전마을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람 친화 교통안전 도시’ 구축

2018. 03. 02. | 인천광역시 | 교통정책과

인천광역시가 교통약자와 보행자 친화도시로 거듭난다. ‘누구나, 어디든,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Only for Citizen)’라는 슬로건에 따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증차, 지난 2월초 개통한 청라 신교통(GRT) 노선에 총 432대를 운영,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증차로 총 15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 바우처 택시를 150대로 증차 운영 계획, 영종·용유지역 전담 차량 배정, ②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승강장(셸터)을 신설 및 버스정보안내기를 확충하는 등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 ③ 생활권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남동구 복개로 등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추가 인증 추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노면표시·과속방지턱 등) 설치·정비와 함께 CCTV를 확충하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한다. 이밖에, 인천광역시시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워킹 스쿨버스·보행 교통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국민 체감 공공디자인’ 선정되어 ‘지하상가 길 안내체계 구축’ 추진

2018. 04. 25.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시는 ‘2018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길 찾기 쉬운 금남로 지하상가 만들기’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시범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시행했다. 광주광역시시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금남로가 혼란스러운 안내체계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광주디자인센터와 함께 사업을 구상, ‘편리한 안내체계 구축’ 부문에 응모해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남로지하상가 일부 구간의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금남로지하상가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안내체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시범구간을 운영하고, 공간의 특성을 살려 편의·안전·재미를 창조하는 아담한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지속가능한 주민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설계단계부터 상가주민과 사업수행기관,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방지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지하상가 이용 시민과 상가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안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사업평가를 반영하여 향후 안내체계 개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건축 및 도시

충청남도, 외벽 불연자재 사용 및 필로티 건축물의 피난통로 확보 등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2018. 01. 11. |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가 도·시군, 충남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한 선도적 건축 행정 시행 방안을 공유하며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안 다가구주택 화재나 제천복합스포츠펀터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전을 체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올 1월부터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거용 건축물과 2층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설계부터 허가 시까지 외벽 불연재 사용, 필로티 출입구 구조개선을 통한 피난 통로 확보 등 건축물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전국 최초 선도적 건축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도는 시군과 함께 외벽 가연성 자재 사용 건축물 현황을 일제 조사해 DB를 구축하고,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도적 건축 행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넓히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충청남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시·군 맞춤형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 수립’

2018. 04. 29. | 충청남도 | 건설정책과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 수립에 나섰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도는 본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별 산업·경제·인구·관광·역사 등 지역적 특성과 정보화 현황, 스마트도시 수요 및 적용 가능 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현재 또는 미래 도시 문제를 찾는다. 또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규정을 분석하고, 국가 상위 계획과 산업 및 기술 정책 동향 조사,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 및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충남 맞춤형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ICT와 4차 산업혁명 등을 활용한 최적화된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을 수립하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계획 및 전략 사업을 찾게 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시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도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갖추어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2017. 12. 01. | 천안시 | 명품문화공원추진단

천안시는 천안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삼거리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돼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삼거리공원의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용역을 착수하고 각종 용역보고,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이번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변경)은 기존 공원의 철저한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선진공원 벤치마킹 등을 기반으로, 천안삼거리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입지적 의미와 숲이 우거진 현대적 공원의 기능을 담고 있다. 삼거리공원의 경우, 한양길·호남길·영남길 등 삼남대로의 테마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만남과 화합의 장인 삼기원을 어울림 터로 재현했다. 호남길은 능소와 박현수의 설화를 주제로 사랑의 섬을 조성하고, 영남길은 여사 박문수의 이야기에 따라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기원의 언덕을, 한양길은 현대적 의미를 담아 진입광장 및 음악분수 등 각각의 테마를 갖고 있다. 그밖에도 넓은 버들 무대 및 광장, 도깨비

장터(프리마켓), 풍당풍당 실개울, 천안 이야기 벽, 버들 정원, 시민참여 숲, 참여 정원, 숲속 자연 놀이터, 야생초화원, 미니 동물원 등을 꾸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공원으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중반기에 착수하고 2019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게 된다.

▼ 천안삼거리공원 조감도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안전도시 구현

2017. 12. 05. | 천안시 | 안전방재과

천안시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확대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올해는 천안서북·동남경찰서가 지역치안협의회에 건의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서북구 성환읍의 성환역·이화시장·남서울대 학사촌 일원에는 안심등불(센서등), CCTV·비상벨 안내표지, LED 보안등, 여성안심구역 내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시설물이 설치됐다. 동남구 원성동·봉명동·문성동 일원 여성안심구역에 태양광 표지병과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천안천 등의 하천 산책로에 긴급신고 위치표지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천안서북·동남경찰서에 조직된 범죄예방진단팀과 협력하며 범죄환경을 진단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 심리 사전차단을 돕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골목길 모퉁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 등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은폐 가능성이 큰 범죄 사각지대에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했고, 야간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이 눈에 잘 띄도록 LED 안내표지박스와 바닥표지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변 산책로에는 긴급신고 위치

표지를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경찰서 또는 소방서가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는 내년 중 주민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범죄예방시설물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천안시, 도시재생한마당에서 '우수상' 수상

2017. 12. 27.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으로 열린 '2017 도시재생 한마당'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천안시 대표로 참가한 천안 원도심 청년들은 '천안 도시재생, 청년으로 물들이다'를 주제로 시민과 상인, 청년들, 지자체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한 시민참여 축제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지푸르나 천안시 청년대표가 올해 원도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던 '천 개의 눈 솜바꼭질 축제'를 직접 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원도심 상인들과 청년들이 하나 돼 극복했던 과정을 발표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받은 까치목공소, 자연아 놀자, 포에지 등이 도시재생 장터에 참여해 손수 만든 작품 등을 판매하고 체험장을 운영하여 주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원도심 주민, 청년들, 상인 모두와 함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천안' 사업 순항

2018. 02. 01. | 천안시 | 문화관광과

천안의 원도심인 문화동 명동거리에 자리 잡은 '복합문화공간 아트큐브136'을 거점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천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은 '시민이 디자인하는 문화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창의 문화인력 양성, 시민 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문화-도시-재생'이라는 목표 아래 천안시 도시재생과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올해는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사업은 더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더 발전시켜 ‘안정기’로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점 공간을 넓혀 천안 전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문화도시 천안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천안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결과’와 부처 간 연계 협력 우수사례 등을 토대로 천안시와 함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약 1년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5년간 대규모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문화로 지속가능한 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천안의 미래상 제시한다!

2018. 03. 16. | 천안시 | 도시계획과

천안시는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도시 공간 종합분석 및 기본구상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천안 도시기본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②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생활권별 계획 인구 지표 현실화, ③ 미개발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그동안 관 주도로 추진했던 계획수립 방식을 타파하고 시민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부터 ‘시민참여 도시행복참여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시 공간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의 ‘격자기반 국토지표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8월경 주민공청회와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 중 충청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안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탄력

2018. 03. 22. | 천안시 | 문화관광과

천안시는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남산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유휴 공간을 세대 간

상생 공간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인 남산지구에 위치하여 지역사 박물관으로 재 활용될 공간이나 지역민과 관광객 접근이 쉬워 활용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 간의 상생 가능성을 품고 있어 대표적 안내소 역할을 비롯해 교육·문화·예술 등을 통한 세대 연결 문화 구축 허브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해당 공간에 도시의 역사·시간 및 정체성을 담은 커뮤니티형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삼거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거리문화 프로그램은 ① 남산 중앙시장 연계 ‘삼거리 식탁’, ② 천안 문화도시 사업 연계 어르신 대상 ‘공유스쿨’ 운영, ③ 천안미디어센터 연계 ‘찾아가는 상영회’ 개최, ④ 문화활동가 주최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천안시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 삼거리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심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적 교류·창조의 핵심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고 문화 활동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안전하고 똑똑한 도시 만든다!

2018. 05. 11.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아산시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정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지상 2층~4층)에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들어선다. 시에 따르면, 범죄 발생상황부터 주정차 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최첨단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목적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CCTV를 기능·공간적으로 통합해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 구축 일정은 다음 달 기반공사를 마무리 짓고 7월 중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준공과 천안아산 방범 CCTV 관제 시스템 이전 및 고도화 구축사업을 시작, 10월 내에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천안과 아산의 방범·교통·주정차단속 CCTV를 연계 활용해 다양한 도시 상황을 통합 제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도시관제와 행정업무를 접목·운영하면서

범죄 상황과 위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 예방 효과를 끌어내며 천안아산을 안전도시로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감도



공주시,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본격 시행

2017. 12. 08.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공주시는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CPTED)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충청남도 범죄환경디자인 공모사업’에 신관동 매산동길 일원이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계획은, ‘안심탄탄 학사길’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로 매산동길 인근 지역에 학사길 게이트 조성, 안심벨 설치, 반사경, 안심로고젝터, 방범팬스, 미니정원, 환경그래픽 등을 조성하며, 올해 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신관동 번영2로, 신관동 흑수골길, 옥룡동 중골1길 등 3개소에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0년까지 CPTED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는 물리적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간 사회적 결속을 높여 자연적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하였다.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2017. 12. 15. | 공주시 | 창조도시과 도시재생팀

공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공모’에 선정됐다. 공주시는 2018년부터 4년간 옥룡동 버드나무 1·2길 및 은계골 일원을 ‘문화와 세계유산을 품은 공산성 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비교적

공주 중심부에 위치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인접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곳이다. 공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5개 대사업 16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 선도 도시의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공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청회’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부의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걸맞은 주민숙원사업을 지속해서 발굴·검증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중심형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주시,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2018. 01. 24. | 공주시 | 허가과 건축행정팀

공주시가 주거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15개 가구를 선별하여 2월 중순부터 본격 추진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향후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이며, 80세 이상 자립생활가능자와 1~2등급의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은 우선 선정된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600만 원 범위의 주택 개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현물지원이며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가구는 자가주택·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를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무허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주시는 본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이 주거공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공주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예 박차

2018. 03. 19. | 공주시 |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공주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안전도시란,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의미하며,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ISCCC(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사회 전반에 걸쳐 7개 분야 116개 사업을 심의해 공인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는 재난 안전, 자살 예방, 교통안전, 고령자안전, 어린이·여성·청소년안전 등 5대 중점분야 215개 사업을 설정하고, 일사부기 분과위원회에서 통폐합 및 보완을 거쳐 시민 안전망 재고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개정

2018. 04. 24. |공주시|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공주시와 공주경찰서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에 따른 대책으로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와 경찰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① 조례명 변경(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② 방법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③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이다. 특히,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에 방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공주시는 시범사업으로 공주대 인근 신관동 매산동길 일대에 다양한 방법시설(방범문, 방범창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CPTED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개별주택 등에 방법시설물 설치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보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국비 50억 원 확보

2017. 12. 15. |보령시|문화공보실

보령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리동네 살기좋은 분야’에 ‘함께 가꾸는 공촌마을 녹색 행복공간’이 선정,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공촌 1, 2동은 보령 진입 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마을이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63%에 달하며 하수도·도시가스 등 생활 인프라시설이 취약해 주민들이 거주 환경에 불편을 느껴 온 지역

이다. 본 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① 마을 공동작업장 및 텃밭 조성 등 주민 일자리 창출, ② 공동 홈(실버하우스) 및 청년층을 위한 행복 Green 임대주택 신축, ③ 노후주택 집수리, ④ 건강 썬지공원 조성 등 주거복지 실현, ⑤ 안심·스마트 골목 정비(CPTED), ⑥ 녹색 스마트 주차장 조성 등 도시 경쟁력 향상, ⑦ 도시재생 뉴딜대학, ⑧ 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 등 사회적 통합 등이다. 보령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 복원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건축 도서관, 아산 중앙도서관

2018. 02. 08. |아산시



▲아산시 중앙도서관

아산시는 ‘아산 중앙도서관’을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 도서관으로 건립했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의 규모로, 북카페, 어린이자료실, 유아 자료실, 종합자료실(2개소), 열람실, 문화강좌실, 동아리실, 강당(대·소), 리딩데크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공간을 갖춘 대규모 토탈 문화정보서비스 건축물이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획득했고 패시브 건축물 본인증(2.0L/m²a)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도 획득하여 전국 최상위 에너지절약 건축물로 건립됐다.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축 요소로는 고기밀·외단열 단열재, 고단열·고기밀 창호(삼중유리), 외피 면적 최적화, 열교차단재 등 패시브 건축기술과 고효율 조명(LED), 고효율 냉난방기기, 열회수 환기장치, 전동 외부 차양, 지열·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자립률 27.77%를 달성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와의 시범사업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비 약 2.5억 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절감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적화된 에너지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운영단계에서 우수한 에너지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예정되어 있다.

아산시, '공공청사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완료

2018. 04. 10. | 아산시

아산시는 공공청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둔포면사무소 및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창호교체공사를 3월에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선정으로 추진되었으며, 노후 창호 90개소(둔포면 42개소, 온양2동 48개소)를 고기밀 시스템 창호로 전면 교체하고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쪽 일부 구간에 외부전동차양을 설치했다. 아산시는 건축물 열 손실의 25%를 차지하는 창호를 고기밀 시스템창호로 교체함에 따라 연간 17,400kWh 전기와 3,158L의 등유를 절약해 연간 약 84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외부전동차양 설치를 통해 실내온도를 5°C 낮춤에 따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읍·면·동 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적인 건물유지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추진

2018. 04. 23. | 아산시

아산시는 에너지 자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을 포함) 및 주상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의 건축물을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 등을 목적으로 신축 시 공사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증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공사비 1/2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사비용 지원대상은 ①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 ②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단열재 교체, ③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어장치 설치 등 옥상녹화(법정 조경 제외) 및 벽면녹화 등이다. 아산시는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이 커 화석연료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서산시,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 박차

2017. 12. 15. | 서산시

서산시가 올해 농어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 건설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주요 내용으로 ①(생태계 복원)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신장천, 기포천 등을 복원하는 사업 진행했다.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해 고북 기포리와 팔봉 어송리에 소규모 공공처리 하수시설을 조성했고 하수관거 정비 추진 중이다. 해미읍성 무궁화동산을 비롯해 시가지 제철 곳 및 국도 29호선 가로수 식재 등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②(균형 잡힌 농어촌 개발) 지역 면 소재지의 종합 정비를 진행 중이며, 대산읍도와 지곡 우도에는 국비 등 외부재원 39억 원을 확보해 지역 역량과 관광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대산공단 물 부족 문제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반영시켰다. ③(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기반 구축)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석지구와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간판 정비사업은 중앙로, 변화로 등 시가지 중심에서 음암면과 인지면 등 농촌 중심가에서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옛 삼양냉동 건물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취약계층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정보시스템과 버스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서산시는 도시환경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를 설계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꿔 나가겠다고 하였다.

서산시, 서해안안전체험관 조성 첫 삽

2018. 02. 20. | 서산시

서산시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서해안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서해안안전체험관은 잠홍동 335-20번지 일원 8,984㎡에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총 58억 6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중 국·도비 등 외부재원 13억 6800만 원은 지난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선정으로 확보됐다. 서산시는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지난해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서해안안전체험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육, 놀이를 접목한 안전체험 활동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전시물이 설치된다. 특히, 영유아 학습장은 다양한 놀이와 게임 및 실물체험을 해볼 수 있어 많은 어린이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시는 서해안안전체험관이 준공되면 각종 재난·재해와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키워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서해안안전체험관 조감도



서산시, 복합터미널조성-전통시장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18. 05. 01. | 서산시

서산시가 복합터미널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산시는 시외·고속버스가 운행되는 복합터미널을 조성하는 동시에, 동부전통시장과 해미시장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합터미널 조성으로 인한 인근 시장의 상권 위축 우려를 일거에 불식한다는

계획이다. 복합터미널 조성 계획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 중이지만, 인근 시장의 상권이 위축되는 걸 우려해 불찬성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산시는 복합터미널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기존 터미널은 시내버스 환승 터미널로 존치시키고 가족단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유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주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미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기반조성에서부터 복합터미널 조성까지는 5년에서 8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는 서산시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주변 지역 상인은 물론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하였다.

계룡시, 2018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본격 가동

2018. 03. 29.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3월 28일 ‘2018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계룡시에서 개최되는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13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문화제 장소 및 행사 기간, 주제어 선정 등 행사 세부사항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4월까지 예산안, 공모 요강을 확정하고, 10월 중 문화제를 개최기로 했다. 또한, 올해 문화제 추진 방향을 ①도민과 공유·소통하는 건축문화 행사, ②충남의 문화 정체성 및 역사성을 담은 공공디자인 저변 확산, ③ 문화체험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④ 공모전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 등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으로 정했다. 한편, 2018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는 충청남도과 계룡시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와 충남공공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건축문화발전과 공공디자인 저변 확산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 건축인과 지역주민의 문화의 장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테마학습원 조성 돌입

2017. 12. 12. | 당진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테마학습원 조성사업’의 공사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조성에 돌입했다. 이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농심테마파크 내에 다양한 농작물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업테마학습원의 온실은 종이비행기를 형상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호기심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성인에게는 옛 추억과 동심을 되돌려주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기존에 조성된 식물생태학습원과 자생식물학습원, 동물농장과 더불어 농업테마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년 봄마다 개최하는 ‘봄꽃 맞이 농심 체험 한마당’과 ‘가을 국화전시회’ 등의 볼거리와 연계되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더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테마학습원’ 조감도



당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억 투입

2018. 01. 24. | 당진시

당진시가 올해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으로 ①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 내에 건축된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② (빈집정비사업)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주택 1동 당 6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③ (슬레이트 처리사업)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대상주택 1동 당 최대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추진

2018. 02. 26. | 당진시

당진시는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관내 주 도로변과 마을 입구에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한다. 이 사업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주변 지역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당진시는 지난달 읍·면·동을 통해 지역 내 주 도로변과 마을 입구에 방치된 건축물 중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34동을 정비키로 확정했다. 당진시는 건물 정비에 필요한 설계를 내달 중 완료하고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당진시는 방치된 건물은 안전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탈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도로변 방치건물 철거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금산군, 84억 원 투입 농촌주택개량사업 박차

2018. 03. 30. | 금산군

금산군은 3월 21일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와 귀농·귀촌 예정자 등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설명회가 끝난 뒤 주민들의 의문 사항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축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감면의 혜택을 받고, 전 대상자는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지붕이 슬레이트인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농가는

별도로 336만 원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도 받게 된다. 주택개량 사업은 사업신청자의 여건에 맞춰 진행되며, 올해 사업 물량은 120동으로 총 84억 원(농협 자금)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한편, 금산군은 올해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293동, 주택 지붕 개량 350동, 주택개량 120동, 빈집정비 100동, 저소득층 집수리 93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여군, 귀농귀촌 희망도시 1번지 만든다

2017. 01. 11. | 부여군



▲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부여군은 2018년 ‘귀농귀촌 사업 계획’을 확정·추진해, 2017년 ‘충남 귀농귀촌 최우수기관’의 명성을 잇기로 했다. 먼저, 귀농 수요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맞춤형 5개 사업을 운영한다. 세부사업은 ①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사업(10개소), ②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사업(6개소), ③ 아름다운 귀농마을 만들기 지원사업(2개소), ④ 2030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2개소), ⑤ 귀농인 농산물 생산 유통개선 지원사업(1개소)이다. 3~4월 중에는 귀농인 대상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귀농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공간을 제공하면서 농업창업과 영농실습체험 등을 지원하는 ‘귀농인 희망센터’도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 중이다. 귀촌인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생활 원예 텃밭 조성지원, 집들이 비용 지원, 읍면 귀농귀촌 화합행사 지원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인 임시거주 공간인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소모임 학습동아리 지원,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도움 교육,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현장에 로지원단 운영,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등 정착에 초점을 맞춘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영농교육과 유대관계 형성 및 멘토를 활용한 밀착지원이 목적이며, 귀농귀촌 이후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정착을 포기하는 수요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여군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자, 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교육, 청년 창농 안정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줄 청년농부 육성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부여관북문화공간,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2018. 04. 13. | 부여군

부여군은 이달 초부터 관북리 일원에 위치한 ‘관북문화공간’을 활용해 사비북카페를 열고 주민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근대건축물의 원형을 간직한 관북문화공간은 근대문화관, 심화당, 갤러리 등 근대건축물 6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도보존지구의 근대건축물을 전시·체험공간으로 개관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힐링 공간이 되어왔다. 북카페 가장 안쪽 건물은 2층 구조로 복원되어 1940년대 건축물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북카페 2층에서 내다보는 부여시내 풍경과 부소산성의 모습은 이색적인 볼거리다. 관북문화공간의 부여문화사랑방에서는 차 문화를 즐기며 과거의 부여를 흑백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어, 유적지 탐방 전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담소를 나누기 적합하다. 부여군은 부여관북문화공간을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부여문화 사랑방



서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승인

2017. 12. 29. | 서천군



서천군은 장항읍 성주리 일원 부지에 장항성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및 고시됐다고 밝혔다. 장항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으며, 관내 연구기관, 기업체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관내 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을 지역주민·서천군·NH가 협업하여 주변 지역 정비계획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여 내년도 정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천군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층에 행복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천군, 2018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

2018. 04. 18. | 서천군 |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서천군은 농어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과 적재 중인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 포함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대대적인 지원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을 연계해 효과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처리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수탁받아 추진하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비를 동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처리비용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 자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 200여명을 확정했으며, 4월부터 13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해 11월 말까지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서천군은 주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군도 농어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홍성군,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

2018. 05. 03. | 홍성군

홍성군이 인구유입 촉진 및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① 홍성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영역에 착수했다. 내년 2월까지 진행예정인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 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②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 사업은 차질없이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관리 477-1번지 일원에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해 오관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중이다.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소공원, 공동주택 등의 조성이 주요 사업이다. ③ 오관리 9~10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중심지 개발사업'도 올해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쟁력을 크게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주차장 신설,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④ 홍성군은 '오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장기간 방치돼 있던 다운지구 새뜰마을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해당 사업은 올 4월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다운마을의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 마을 환경 개선사업 등을 진행, 주민들의 생활과 위생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군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삽을 들 예정이다.

홍성군, 2019 문화특화지역 조성 문체부 심사 '적합' 판정

2018. 05. 08. | 홍성군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 문화특화지역 조성 신규 사업' 적정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사람을 키우고 품으며 모이게 하는 인본 문화도시 홍성'을 주제로 신규 사업 심사를 받았다. 군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내용은 ① 시민·청소년 인문교육, ② 생활동호회 육성, ③ 문화도시 전문 인력 양성, ④ 대학연계 청년예술인 정착 지원, ⑤ 근현대 골목 정비·활용, ⑥ 귀농·귀촌 지원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청년 중심의 협의체 구성 및 일자리 창출 성과가 기대감을 높여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군은 본 사업을 계기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원도심 공동화 방지, 내포 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민 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 육성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둬 인본 문화도시 홍성을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예산군, (구)군청사부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 사업 선정

2017. 01. 04. | 예산군

예산군은 2018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구)군청사 부지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복합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전국 77곳의 신청을 받아 평가가 진행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구)군청사 부지에 짓게 될 행복주택 건설비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을 판이 마련됐다. 예산군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구도심 활성화 및 인구 증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예산군,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8. 01. 18. | 예산군

예산군은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 ①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지역의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빈집정비사업)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슬레이트 처리사업)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군은 농촌 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예산군, 50년 역사 청사 떠나 새 등지로 이사

2018. 02. 05. | 예산군



▲ 예산군 신청사 전경

예산군이 1968년 5월 건축된 50년 역사의 청사에서의 업무를 2월 11일까지 마감하고 새 등지로 자리를 옮긴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2015년 10월 8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10일 준공됐다. 신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민원실로, 3곳으로 나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던 민원실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아트홀(대공연장)은 300여 석 규모로, 각종 교육, 행사, 공연 등 문화행사 등을 통해 문화예술공연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5350㎡ 규모의

구청사는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지역으로 활용해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예산군은 작년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주택 건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심사를 통과해 행복주택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2018. 04. 26. | 예산군 | 교통과

예산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고 4월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예산군 공주대 산업과 학대학 생명과학관 1층에 문을 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거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도시재생정책 사업 전반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자·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주요 역할은 ①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지원, ② 도시재생뉴딜사업 업무지원, ③ 우수사업 연구·발굴, ④ 주민역량 강화 및 교육·홍보, ⑤ 주민협의체 구성·지원 등이다. 예산군은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 거점으로서 행정과 주민 간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태안군, 4차 산업시대 선도하는 ‘첨단 안전도시’ 되다!

2018. 02. 01. | 태안군

태안군이 올해 전 마을에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을 구축,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안전도시로 거듭난다. 태안군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까지 시스템 미설치 지역인 70개 행정리에 디지털 무선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은 각 가정 에 디지털 수신기를 보급한 후 전파를 이용해 무선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설비로, 재난이나 긴급상황 시에는 태안군이 직접 방송을 할 수도 있어 효용이 매우 크다. 군은 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하고 지난 2014년부터 항·포구 주변 및 재난 발생 위험 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에 돌입, 지난해까지 총 101개 행정리에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 모든 행정리에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 및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어촌지역 내 무선인프라 구축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관 및 공공공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 및 이미지 제고 위한 경관 특화사업 추진

2018. 03. 22. | 충청남도 | 내포신도시건설과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및 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휴지 22개 블록 69만 4000㎡를 대상으로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 등 토지 소유자가 땅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이 시행한다. 우선 아파트 인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페추니아와 메리골드, 해바라기, 국화, 코스모스 등 계절별 꽃 단지과 함께, 포토존, 산책길 등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신도시 주변 지역에는 이탈리아 라인그라스와 옥수수 등을 심어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을 만든다. 또한, 내포신도시에는 주민과 이주기간 종사자들이 텃밭을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도 조성·운영한다. 주말농장은 지난해와 같이 용봉산과 효성아파트 인근 2곳으로, 총 2만㎡의 땅을 950세대에 분양한다. 도는 꽃 단지 등 경관 특화 사업이 내포신도시를 아름답게 변모시킬 것이며, 주말농장이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잇는 공간이자 어린 자녀의 친환경 자연 학습 공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청남도, 안전한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위한 ‘2018년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9개 지역 선정

2018. 04. 09. |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충청남도는 아름답고 안전한 경관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을 실시, 9개 시·군을 선정해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도의 공공

디자인 사업은 지역의 소공원과 광장, 주민자치센터와 가로변 사인물·담장·벤치·울타리 등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게 꾸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또 보안등·비상벨 등 방범 시설 개선 및 설치, 주민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범죄 유발 환경개선도 공공디자인 사업에 해당한다. 도시와 농어촌 공공디자인,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군 18곳이 신청해 경합을 펼쳤다. 공모 선정 결과, ① 도시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공주시 ‘공주대학로 활동 거점 조성 사업’, 당진시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문화거리’, 부여군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거리 만들기’, 태안군 ‘머무르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등 4개 시·군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② 농어촌 공공디자인 분야는 천안시 ‘포도마을 삼곡리 어메니티’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③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은 보령시 ‘신평지구 어린이 안심 상삼마을 만들기’, 아산시 ‘둔포면 열싸길 조성 사업’, 서산시 ‘거리를 밝히고(*), 안전을 더하다(+), 예산군 ‘예산읍 안전한 길! 안심하길!’ 등이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도는 선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주민과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공주시, 감영길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완료

2017. 12. 19.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 ‘감영길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적용 모습

공주시가 ‘2017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감영길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사업을 완료했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확보,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영길 일원 총 27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했다. 특히, 업주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간판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업소의 특성과 규모, 건물 규모 등을 고려한 디자인, 1업소 1간판을 통한 환경개선, LED 전구를 사용한 친환경적 설계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경관으로 탈바꿈했다. 감영길은 충청감영터와 목관아터를 연결하는 공주 원도심의 주요 축으로, 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감영길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미시한한 점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8년 공주시의 농촌경관이 아름다워집니다

2018. 01. 10.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기반시설팀

공주시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 분야는 ① 농촌주택개량사업: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②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슬레이트처리사업: 지붕재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완료하면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주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해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공주시,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본격 추진

2018. 02. 09. | 공주시 |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공주시가 올해부터 제민천 상류 지역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방하천 전국 공모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공주시는 2019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공주시청에서부터 금학생태공원까지 총 1.8km 구간에 대해 하천의 다양한 기능과 지역 발전 전략이 연계된 신개념의 하천 정비를 시행하게 된다. 공주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추경에 시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주시는 제민천 상류 지역의 빠른 정비를 통해 하천의 치수 안정성뿐만 아니라 원도심 중심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는 최고의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 공주시 제민천 정비사업 추진



공주시, 2018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2018. 03. 02. | 공주시 | 도시정책과 공원녹지팀

공주시가 '기억에 남는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 조성을 위해 2018년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 공주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미르섬, 세계유산 주변 관광지와 시가지에 화단 및 도로변 화분 등을 조성하여, 9월 개최되는 제64회 백제문화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꽃으로 수놓아진 오색빛깔 행사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주시CI마크를 활용한 계절꽃 단지를 조성해 포토존을 마련하는 한편, 미르섬 등에 설악초꽃을 심어 무더운 여름철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억에 남는 경관 조성을 위해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붉게 변하는 핑크물리, 땀싸리(코키아) 단지 조성으로 금강물에 물든 울긋불긋한 노을빛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올해의 관광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2016 국토공원화사업과 명품관광도시 이미지 조성 사업



공주시,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신청 100건 돌파

2018. 04. 17. | 공주시 | 창조도시과 세계유산팀



▲ 공주 한옥지원 사업 활성화

공주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2018년 4월 24일 기준 신청 건수가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옥 신축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식담장 설치 39건,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4건, 간판 2건, 한옥수선 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 및 송산리고분군 주변 지역에 한옥이 신축되면서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한 고도 경관 개선'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옥이 주거용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찾집,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밤에도 불을 환히 밝히는 한옥이 늘어나면서 관광객 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연계 사업이 추진되고 지원 대상 범위가 기존 금성동, 교동, 반죽동에서 봉황동, 상성동, 중동, 수촌리까지 확대되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하여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공주시는 2019년까지 한시적 사업이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주시, 2018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2018. 04. 19.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공주시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2018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서 도시 공공디자인 분야에 '공주대학로 활동거점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공주대학로는 공주대학교, 영화관(메가박스), 상업지역 등이 인접해 보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주시는 젊음의 생기를 담은 청춘광장 조성, 대학로의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반영한 보행로 개선, 이용객 편의를 향상할 펜스와 벤치 같은 공공시설물을 조성해 보행자가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공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투입, 2019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보행자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조성해 도심 활력소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일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주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그 효과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아산, 자연생태도시로 우뚝서다

2018. 05. 04. | 아산시

아산시는 '제13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생태복원 부문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아산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① 실개천 살리기 운동추진, ②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③ 반딧불이 보전사업 등 자연생태복원 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속적인 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마을과 실개천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주민·기관·사회(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실개천살리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마을 대표를 실개천지킴이로 위촉하여 주민 자율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맞춤형 주민 환경교육을 시행하여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의식 개선에도 힘썼다. 기존에 복원한 45개 마을에 대해서는 실개천정화의 날(설·추석맞이, 봄맞이, 휴가철 등)을 정하여 하천정화 활동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운동의 발전 요인은 하천호소의 수질 개선에 있어 물길 최상류인 실개천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인식한 점이 주요하다. 이에 2011년부터 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마을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주민의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동시에 실개천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환경단체의 전문가의식, 맞춤형 환경교육, 기업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실개천에서 가재잡고 노는 아이들



서산 양유정공원 '탈바꿈'한다

2017. 12. 20. | 서산시

서산시민의 400년 휴식처였던 양유정공원이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서산시는 제5호 어린이공원의 양유정공원을 리모델링한다. 양유정공원은 파고라와 체육 및 놀이시설 등을 갖추어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으나 최근 주변 지역 상권의 쇠퇴로 옛 명성을 잃고 있다. 이에

서산시는 지난 2014년 양유정공원을 되살리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2015년에는 양유정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도 실시했다. 서산시는 사업선정으로 확보된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원을 들여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상상놀이터, 문화광장, 경관조명 등을 조성한다. 공사는 2018년 3월 마무리되며, 서산시는 양유정공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줄루 하나 되는 문화거리 조성된다

2018. 04. 12. | 당진시

기지사줄다리기 민속축제가 개막한 가운데, 당진시가 줄 제작장에서 박물관 입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기지사줄다리기를 알릴 수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당진시가 충청남도의 '2018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5억 2,400만 원을 확보해 '줄로 하나 되는 문화거리'를 테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에 착수, 내년에 열리는 기지사줄다리기 민속축제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거리 조성과 함께 포켓 쉼터와 안내판, 가로시설물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줄나가기 행렬을 주제로 한 파노라마 스토리보드와 농기를 상징하는 거리조형물을 조성하고, 축제 때마다 임시로 게이트가 설치되던 박물관 입구에 '줄 통과 의문'을 설치해 박물관의 웅장함을 더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내년 열리는 축제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줄나가기 행렬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부여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박차'

2017. 12. 08. | 부여군

부여군은 고도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주거 환경 개선과 고도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한옥 지원)'이 성과를 보이며 한옥 짓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2017년 9월말 기준 69건

사업비 40억3천만 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통한옥 41건, 대문·담장 27건, 생활한옥형 건축양식 1건 등으로, 한옥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무상지원하고, 한옥건축 양식은 최대 5천만 원, 담장 등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백제고도 부여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한옥 및 한옥 건축양식, 가로변 건축물, 담장, 간판 등에 대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재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낙후된 문화재 주변 주거환경과 고도경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2018년도까지 이어지는 본 사업을 통해 고도이미지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한옥 지원 사례



부여군, 백제고도야경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18. 01. 15. | 부여군

부여군은 밤이 아름다운 부여를 만드는 '백제고도야경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완료하였다. 백제고도야경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세계유산도시 부여군에 있는 핵심 역사 관광지에 빛을 밝히는 사업으로, 구드래 조각공원, 공남지 및 오천결사대 충혼탑 일원에 사업비 30억을 투입해 야간 경관 조명을 개선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발주하여 2018년도는 구드래 조각공원, 2019년도에는 공남지와 오천결사대 충혼탑 일원에 착공할 예정이다. 구드래 조각공원 내 경관조명이 개선되면 밤에도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 공연, 전시 등 문화시설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과 별도로 바닥분수 설치 사업과 구드래역사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부여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남지는 조명시설 상당수가 노후 및 파손되어 관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설치·교체가

필요하다. 공남지와 인접한 오천결사대 충혼탑 역시 역사적 가치와 별개로 통행로가 어둡고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남지와 연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이번 사업지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커 유적 보존과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인지도 향상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곳으로, 단계별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백제고도야경 프로젝트 추진



▼ 밤에도 안전한 공원 조성



지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힐링을 경험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되어 종합관광휴양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둘레길 출렁다리를 지나 양화 방면으로 500m만 가면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송정 그림책 마을을 만나게 된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보이지만 그림책 만들기 체험, 핸드메이드 찻집의 차와 ‘할머니 도시락’,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체험코스가 큰 인기다. 그 외에도 계백장군을 비롯한 여덟 충신의 정신을 기리는 팔충사와 원효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오덕사 등 문화유적지도 자리하고 있다. 부여군은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쳐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서동요역사관광지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및 관광코스 개발로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



부여군,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 1단계 완료

2018. 01. 17. | 부여군

부여군은 덕용저수지의 수려한 수변 경관과 서동요 테마파크를 연계한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부여군청소년수련원, 다목적 운동장, 줌라이더 등 체험 활동 시설 건설, 출렁다리, 서동요 수변둘레길, 전망대, 수변쉼터, 주차장, 등산로 개발 등 1단계 조성이 마무리되어 종합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연말에 완공한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을 임시개통하고 안전성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개통식을 가졌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은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규모 수학여행단 유치는 물론 청소년수련복합단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덕용저수

부여군, 서동로 340m 견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2018. 04. 10. | 부여군

부여군이 충청남도가 시행한 ‘2018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 1,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으로 군청로터리에서 공남지로 이어지는 서동로가 기존의 무질서하고 노후된 거리에 벗어나 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정비되어 디자인 부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 대상은 종전에 계획 없이 배치된 시설물, 비좁고 관리가 미흡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보행환경, 밋밋하고 특징 없는 경관 이미지 등으로, 부여의 문화·역사적 옷을 덧입혀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남지로 이어지는 거리는 연꽃을 패턴화해 보도블록, 보도판, 횡단보도, 볼라드 등에 활용한다. 특히, 군청 임시주차장 앞을

포켓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행신호 체계가 없어 위험성이 컸던 횡단보도도 정비하고, 기존 가로등에 LED등을 추가로 부착해 야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 사고를 방지한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참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부여군 대표 관광객 유입지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서천군, 금강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현장 점검

2018. 02. 07. | 서천군 | 정책기획실 정책기획팀

서천군은 금강하구 및 장항읍 일원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장항 신물량장부터 동백대교를 경유해 금강하구둑 팔각정까지 전 구간을 돌아봤다. 또한, 야간 조명 설치현황과 장항 전망산 굴뚝을 활용한 경관조명 설치, 동백대교 서천 방향 조명 설치, 금강하구둑 팔각정 랜드마크 조명 조성 등 전략적 경관조명 조성 방안에 대해 현장 토론을 실시했다. 그중 장항 연안정비 친수 공간 사업으로 만들어진 ‘연안공원’을 활용해 새롭게 떠오르는 장항의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추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천군은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야간 조명 설치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으로 서천군 야간경관의 품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천군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구둑 관광지 내 가로등 교체, 풍차조명 설치, 팔각정 리모델링, 보도블럭 교체 등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금강하구둑 관광지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천군, 봄의 마을 주변 재정비 사업추진 박차

2018. 02. 19. | 서천군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서천군이 2019년까지 ‘봄의 마을 주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천군 봄의 마을은 옛 서천시장을 이전하면서 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에 건립된 문화복합시설로,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 등이 이어져 연간 이용 인원만 약 15만 명 이상이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차문제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천군은 봄의 마을 인근인 서천중학교 옆 야산을 활용해 주변을 재정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내 개최한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은 재정비 설계에 반영하여 내년까지 친환경 주차장과 다목적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천군은 봄의 마을 주변 재정비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복합시설인 봄의 마을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해 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서천 봄의 마을



서천군 ‘역사·문화도시’로 비상, 서천읍성 동문지 복원 시동

2018. 02. 19. | 서천군 |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 서천읍성 동문지

서천군이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강화사업의 일환인 ‘서천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서천군은 서천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성벽의 축성방식과 문루 복원양식의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서천군은 올해 9억 원을 투입해 동문지를 복원하며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고지도 및 축조 시대가 유사한 인근 지역의 읍성복원자료, 지난해 시행한 발굴조사 등을 반영기로 했다. 또한,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서천읍성에 단계별 예산투자를 추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천군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인

서천읍성의 복원이 역사·문화도시 서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며, 내년도에 일반 주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천군, 장항 활성화 회의 개최

2018. 03. 14. | 서천군 | 정책기획실 정책기획팀

서천군은 장항읍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항읍 활성화 중점 사업'은 장항 농촌중심지 사업,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장항 6080 프로젝트 도산장 가는길 사업, 6080 골목길 음식테마 관광사업 등으로 장항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추진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장항 복합문화 테마 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이어지며 향후 3년간 총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활력화 원동력 사업이다. 서천군은 장항읍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구상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입시설 기능의 중복방지, 통합적인 컨셉 유지, 거점 시설 간 기능 연계 극대화 등을 실현하고, 장항읍 새롭게 변모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물장구 치고 물고기 잡는 청양! 10년간 500억 규모의 '물길100리' 복원계획 마련

2018. 01. 30. | 청양군

청양군은 향후 10여 년간 500억 원 규모의 '청양 물길 100리 복원사업'을 추진,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랑 가꾸기 사업,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 간 일관성 및 연계 부족,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미비한 효과를 거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1년여간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 및 수량, 주요 오염원 분포, 수생태계 등 실태조사를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한 오염지류를 선정하여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통합·집중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물길100리 복원, 청정청양 물길100리 지도 구축, 유역중심 물 관리 체계 구축,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의 4대 핵심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 등급(BOD기준)이 현재의 ' 좋음·약간 좋음'에서 '아주 좋음'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물길 복원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로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선도하며 진정한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정 청양'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청양 물길100리 복원 사업 추진



조양로 & 도청대로, 더 안전하고 산뜻해진다

2018. 03. 07. | 홍성군

홍성군은 천년의 관문인 조양로와 내포신도시로 이어지는 도청대로의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년 홍주 조양문 거리개선사업'은 조양문에서 장군상 오거리에 이르는 약 885m 조양로 구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사업 내용은 ① 군에서 추진하는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보도블록 정비, ② 홍주교 야간경관 조명 조성, 가로등 설치, ③ 버스승강장, 가로화분대 등의 가로 시설물 교체, ④ 홍성 전통재래시장 입구 안내사인 설치, 간판 정비 등이다.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면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예산군 덕산면을 연결하는 도청대로 9.9km 구간에는 '홍성·예산 通하는 생활가로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군과 함께 진행하는 연계협력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두 지자체가 공동된 디자인을 적용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① 가로경관 개선 및 정비, ② 세이프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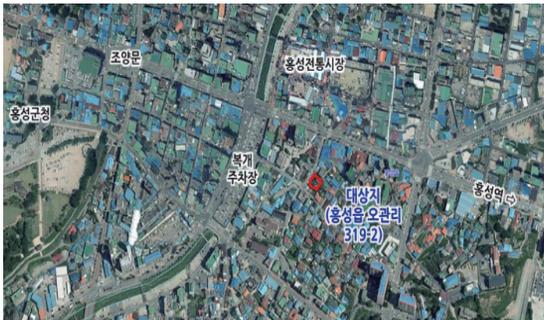
정비 및 조성, ③ 주민 소통 및 안전 공간 조성, ④ 야간경관 정비 및 조성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충청남도청에서 진행한 ‘도청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이어 홍성을 원도심에서 내포신도시로 연결되는 관문인 도청대로를 군민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소통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군, 2018 행복한 도시 만들기 ‘원도심 스마트 쌈지 주차장·도로표지판’ 공모사업 선정!

2018. 03. 20. | 홍성군

홍성군은 지난 3월 15일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18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 사업’에 ‘쌈지 주차장’과 ‘도로표지판’ 부문에 각각 선정되어 사업비 9억5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홍성읍 오관리 일원 기존 도심지의 정주환경 문제점인 좁은 도로와 주차 공간 부족, 원도심의 폐가 및 유흥지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앞으로 조성될 쌈지 주차장은 총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방치되어 있는 홍성읍 오관리 옛 홍성고 관사 부지 617㎡에 위치할 예정이며, 작은 주민쉼터도 마련해 지역주민 및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원도심내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홍북읍 군도 4호선 일원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약 2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명 표지판 5개를 신설하고 7개를 정비하는 등 도로·교통 표지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 홍성 원도심스마트 쌈지 주차장 조성



홍성군, 22억 원 투입해 천 년의 도시에 문화예술 입힌다

2018. 05. 03. | 홍성군

홍성군은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업비 22억여 원을 투입한다. 홍성 역사인물 축제 등 차별화된 지역 향토 축제 육성을 위해 7억 원을,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립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육성 및 지원에 사업비 5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다양한 계층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문화학교 운영, 문화탐방, 거리영화제 상영, 찾아가는 거리 예술제 지원 등 사업에는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전국 예술 대회 개최에도 사업비 3억 원이 계획되어 있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속 대제전 및 풍물 경연대회 참가 지원, 만해 선사 옛길 답사 등 만해 한용운 선사 선양사업에도 2억 원의 사업비가 쓰인다. 총 4억 원이 소요될 향토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위한 자료 고증 행사 및 편찬 사업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결성 농요 및 각종 제향 행사 보존을 위한 지원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성삼문 선생 탄신 600주년 학술 세미나, 한원진 선생 학술대회, 주류성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국내 저명인사들과 함께 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계승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홍성의 다채로운 인물·문화·역사 책자를 발간해 지역 대학과 관학 협력으로 대학 내 부교재 활용 등 지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군, 홍주읍성 역사문화관광 벨트 육성한다!

2018. 05. 03. | 홍성군

올해 홍성의 옛 이름인 홍주 지명이 쓰인 지 천년을 맞이한 홍성군은 홍주읍성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자원벨트를 본격 조성한다. 군은 2015년 수립한 ‘홍주읍성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서촉수구 정비와 조양문 부근 성터 매입, 북문지 및 성곽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2016년부터 시작된 정밀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은 2009년 서문지~북문지~조양문 성곽을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해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188억 원을 투입하여 42필지 8,898제곱미터의 매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69억 원을 들여 42필지 5,35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홍주천년 양반마을의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옛 홍성읍사무소 인근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 설계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옛 홍주읍성 일원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시민, 전문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문화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과 그에 부합하는 각종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홍성을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지역 브랜드를 강화, 지속성장 한다는 전략이다. 군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 2단계 사업을 통해 KT 이전, 경신당 복원, 군청사 이전, 내삼문 복원, 수로복원, 내야시설 및 서문 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홍주읍성 역사문화관광 지역 조성



홍성군, 에너지 자립섬 ‘죽도’ 서해안 제일의 명품 섬으로 만든다!

2018. 05. 03. | 홍성군

홍성군이 군 유일의 유인도인 서부면 죽도를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섬’으로 만들기 위한 관광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서부면 죽도에 대나무숲 탐방로와 전망대 3개소를 비롯한 야영시설, 공중화장실 및 휴게시설, 바다낚시 공원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밖에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민·관 협력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경관수를 식재

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유채, 코스모스 경관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육지와 연계한 식수원 공급과 하수도 사업을 비롯해 방파제와 등대를 설치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구축사업’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및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ESS)를 설치하고, ‘탄소가 없는 섬 죽도’를 위한 환경교육체험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 관광 인프라 벨트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캠핑장, 해안 탐방로 등을 설치하고 독립 에너지 시설인 태양광 응용 홍보안내판, 해충 퇴치를 위한 태양광 해충트랩, 태양광 융복합 와이파이존을 설치·운영하는 등 죽도만의 청정 관광 상품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160여 명이 탈 수 있는 여객선도 본격 운항할 계획이다. 죽도 인근에는 이미 오토 캠핑장, 해상낚시 공원, 갯벌 체험장, 조류탐사 과학관, 승마 체험장 등 관광 인프라가 다수 구축되어 있어 해양관광 허브의 최적지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군은 청정에너지와 생태녹색환경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죽도가 서해안 대표 명품관광섬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죽도’ 서해안 제일의 명품섬으로 조성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덕산면 읍내길 전선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2018. 02. 19. | 예산군

예산군은 한국전력공사와 전선지중화 협약을 체결했다. 전선지중화 대상은 예산읍 내 예산성당~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1000m 구간, 덕산면 읍내길내 덕산지구대~덕산우체국 190m 구간으로 총 1190m에 달한다.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지상에 돌출돼 미관을 저해하는 송전선로가 지하로 매설

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 사업비는 총 27억으로 예산군과 한국전력공사에서 50%씩 부담하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까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예산을 지중화 사업 구간에 보도 위 차량 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포켓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덕산면 지중화 구간에는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한 간판정비 및 도로미관 개선 등 가로경관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 ‘팜컬처시티’에 세계 테마마을 들어선다!

2018. 01. 03. | 태안군



▲ 태안 ‘팜컬처시티’ 마스터플랜

태안군이 준비 중인 도시·농촌형 복합휴양도시 ‘태안 팜컬처 시티 조성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군은 안면·고남 지역에 위치한 지포지구 일대의 부지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별로 팜컬처시터를 조성, 총 1,592 세대의 전원형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서는 홀란드 플라워타운, 몽마르트 컬처타운, 스페인 익사이팅 타운이 조성되고,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에는 덴마크 팜타운, 팜스쿨, 오가닉 팜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워터슬라이드, 루지, 일루미네이션, 뮤직 포레스트, 힐링센터 등의 관광시설을 비롯해 테마 갤러리, 프로방스 공원, 카페 거리, 파머스 마켓, 맛집 거리, 특산품 공방 등 특화거리가 함께 조성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자족형 정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팜컬처시터는 스마트팜과 컬처타운, 페스티벌이 어우러진 신개념 도농 복합관광도시로, 미래 신성장산업인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농업과 관광을 매개체로 두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거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군은 지난해 6월 (주)원마운트와 MOU를 체결하고 업무협의를 진행, 주거와 관광·휴양을 콘셉트로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뉴 시니어(New Senior) 층을 대상으로 한 인구 유입시설을 구상해 왔다. (주)원마운트에 따르면 팜컬처시티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팜컬처시티에 다양한 관광 상품과 체험형 문화축제를 가미해 안면도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지역 관광발전 길 열렸다’ 태안·보령 간 연륙교 상판 연결

2018. 01. 04. | 태안군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상판이 연결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는 지난 2010년 착공된 보령-안면도 간 국도 77호선 공사의 일부로, 총 2,064억 원을 투입한 태안-보령 간 연륙교 건설은 2019년, 해저터널 건설은 오는 2021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은 국도 77호선이 완공되면 고남면 영목항에서 보령시 대천항까지의 차량 소요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태안지역 주민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 등 관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륙교 개통 전 마무리를 목표로 군이 역점 추진 중인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 사업’은 영목항 나들목을 친환경적·창조적 공간으로 정비해 남부권 관광거점의 중심이자 해양관광 육성의 고두보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영목항을 태안군의 ‘제1 관문’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객 수요 급증을 능동적으로 예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세우며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교량과 육지의 접점에 토지를 매입, 대규모 공원과 함께 태안반도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표지석과 홍보관, 방문자센터, 해양레포츠교육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6,920m에 달하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안면도 일대가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남면 신온리에 이어 최근 안면도 관광지 1지구에도 새롭게 문을 연 ‘코리아플라워파크’ 빛축제 및 꽃축제를 비롯, 만리포와 꽃지 등 주요 해수

욕장과 천리포수목원, 안면도 휴양림, 신두리 해안사구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연륙교 개통에 발맞춰 각종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태안-보령 간 연륙교 설치



태안군, 올해 79억 원 투입해 ‘군민 행복공간’ 조성!

2018. 04. 05. | 태안군

태안군이 ‘청정 태안’ 조성을 위해 백화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 사업 등 휴식공간 조성 및 건강한 산림 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백화산 종합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지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등산로 정비사업에 돌입하여 총 6개 노선에 데크시설 16개소와 토크방 8개소, 파고라 4개소, 안내판 49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이달 말 백화산성 아래 데크시설 설치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태안읍 산후리 산 일원 봉우리에 윈드케이بل 현수교 방식 전망교량을 설치키로 하고 디자인 확정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후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의 중이며,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착공에 돌입해 올해 말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청정 태안을 위한 산림가꾸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이원면 관리 일대에 편백나무와 소나무, 밤나무 등을 심고, 장산교차로 구간에는 이팝나무를, 국도 32호선 잔여구간에는 소나무를 심는 등 쾌적한 도시공간 가꾸기에 나선다. 아울러, 안면읍 창기리와 근흥면 안기리 등 5개 지역에 나무 식재 및 벤치·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맞춤형 주민복지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 속 녹색심터를 제공하기 위해 명상 숲 및 썬지썬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지향적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큰나무 가꾸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등 병해충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상방제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숲 보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 시책 추진을 통해 ‘푸른 태안’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태안군, ‘머무르고 싶은’ 도심공간 일군다!

2018. 04. 13. | 태안군

태안군은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으로 태안읍 우체국에서 십자로까지의 250m 구간과 태안 특산물전통시장 입구에서 서부시장 입구까지의 200m 구간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돌입한다. 해당 구간은 서부시장과 태안 특산물 전통시장, 포장마차촌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태안의 지역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거리지만 두 시장이 도로로 나뉘어 있어 시장 연결유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군은 이번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두 시장을 연결하는 가로환경을 조성,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원도심 지역에 ‘머무르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태안읍의 명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도심상권(태안 중앙로)과 상설시장, 서부시장을 잇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의 옛 모습과 상인 및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은 이야기길을 조성하는 등 스토리텔링을 테마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보행자 도로 정비, ② 보행환경 개선, ③ 사인시스템 정비, ④ 오브제 벽화 설치, ⑤ 태안 이야기길 조성, ⑥ 썬지 공간 조성, ⑦ 포켓 쉼터 조성 등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태안읍 원도심 일대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거듭나 기존 해안관광객이 도심지역까지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성황마을 수료식 개최

2018. 02. 11.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1월 20일 ‘2018년도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성황마을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천안시와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골목경제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중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지난해 도시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남구 성황마을 마을주민, 주변 학교,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기초개념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만들어질 마을재생에 중점을 뒀다. 개강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주시 팔복동 새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우수 주거지 재생사례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발굴에 매진했다. 마을정원 가꾸기(게릴라 가드닝) 프로그램에서는 마을주민, 단국대·복자여고 학생들과 협의해 마을 노인회관 공터에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지역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현장체험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 상·하반기에는 도시재생뉴딜 지역(천안역세권·남산지구)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민·관·산·학 등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거버넌스로 팀을 구성해 지역주민의 지도자 육성·발굴과 역량 강화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천안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공주시 신관동,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에 나서

2018. 02. 07. | 공주시 |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신관동이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은 2월 2일 해당 사업의 근간이 될 ‘클린신관운동 발대식’과 ‘도시녹화운동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클린신관운동 실천다짐 결의를 한 후, 14개 단체별로 도시녹화운동 협약식을 하고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클린신관운동은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각 시민단체가 매월 릴레이식으로 지역내 환경정화 활동과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등 환경 관련 시책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다. 도시녹화운동은 관내 삼지공원과 화단 등을 연중 관리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체별로 관리장소를 분담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신관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신관동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아산시, 충남연구원과 장미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 워크숍 개최

2017. 12. 05. | 아산시

아산시는 충남연구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장미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워크숍을 진행했다. 아산시는 2017년 7월부터 충남연구원과 협업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성매매 집결지였던 온양1동 장미마을 일원의 기능전환 이후에 따른 사회적 경제 및 청년특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충남연구원은 Regeneration, Opportunity, Space, Everybody의 앞글자를 딴 ‘ROSE square’라는 컨셉으로, 도심과 공동체의 재생이 모두에게 기회로 돌아가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 창업과 여성·사회적 경제를 아우르는 경제문화복합공간, 지역주민의 소통을 끌어내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간, 여성 인권에 대한 장소성 확보방안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공유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원 확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논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충남연구원은 이날 워크숍에 개진된 의견을 담아 시와 함께 최종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아산시는 아픈 기억의 장소였던 장미마을이 희망과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이 되어 원도심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향후 그 가치를 이어받아 다양한 연계사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산시, 2018년 마을스토리 만들기 사전 교육 실시

2017. 12. 28. | 아산시 | 건축과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마을스토리 만들기 사업’이 달라진다. 이 사업은 주민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경관개선사업으로, 매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의 신청서를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사업 신청 전 인큐베이팅 과정을 진행해 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교육을 이수한 참여 주체에는 마을스토리 만들기 사업평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아산시는 내년에 시행될 마을스토리 만들기 사업은 해당 교육으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어 큰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예산군, 마을 행복을 만나다! ‘제1회 예산군 마을대회’ 개최

2017. 12. 05. | 예산군

예산군은 2017년 12월 제1회 ‘예산군 마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개소 2년을 맞은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곳곳에서 분주히 활동해 온 지역 지도자와 주민, 민간단체 등 각 계각층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식전행사로 예산군 마을대학을 통해 결성된 5개 팀의 팀별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후 토론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센터장의 총평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나아갈 방향과 보완사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①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소개, ② 마을 동아리 공연, ③ 행복마을 참여 부스 소개, ④ 행복마을 한마당, ⑤ 행복마을 선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 마을과 추진 중인 마을, 또 추진 예정인 마을과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등 다양한 마을주민과 단체가 참여하여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행복한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큰 호응을 보였다. 군은 앞으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2018년에 예산에서 개최되는 제5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천안 거리가 미술관으로... ‘오늘미술관 프로젝트’ 추진

2018. 03. 27. | 천안시 | 도시재생과



▲ 천안색깔 무지개

천안시 남산공원의 계단난간과 벤치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천안시는 10개 장소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매년 연속 시행되는 공공미술 전시 사업으로, 천안 어디든 ‘오늘’ 가면 그곳이 바로 ‘미술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작가로 참여해 다양한 공공미술 전시를 함께 선보이며 누구나 ‘어디든 오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3월 20일 완성된 제1회 전시는 ‘천안색깔 무지개’이라는 작품명으로 남산공원 가로수와 펜스, 볼라드, 벤치 등 공공시설물에 색색의 천을 감아 색다른 공간을 연출했다. 시민 작가로 참여한 지역 4개 대학의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천안 곳곳에 무지개를 띄우며 ‘거리를

환하게, ‘마을을 환하게’, ‘지나가는 시민의 표정을 환하게’ 만
들겠다는 희망을 담아 작품을 만들었다. 천을 이용한 패브릭
그래피티(Fabric Graffiti) ‘천안색깔 무지개’의 작품 전시는
4월 말까지 진행됐다. 천안시는 이번 기획전시가 공공미술
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하나의 생활예술문화
로 정착되어 문화적 정서 함양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공주시 버스 승강장이 환해졌어요

2018. 01. 24. | 공주시 | 교통과 교통행정팀

공주시가 관광자원 및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 KTX 공주역 및
시내권 시내버스 승강장 28개소에 39개의 LED 홍보판을 설
치했다. 새롭게 설치된 홍보판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10경 실사 이미지를 LED 라이트패널
에 게시하여 ‘2018 올해의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도시 미관
을 개선하고 한눈에 대표 관광자원을 살펴볼 수 있게 계획되
었다. 특히 시내권에 설치된 홍보판은 어둡던 도시를 밝혀주
어 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
는 홍보판 게시물 교체가 가능한 반영구적 홍보판이므로 주
요 시정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공주시 버스승강장 LED 홍보판 설치



옥암리 생태통로, ‘홍주천년’을 입다!

2018. 01. 12. | 홍성군

홍성군은 지난 1월 3일, 국도29호선 옥암리 생태통로를 완공
하며 상단부에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사적 제231호 홍
주아문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홍주천년의 도시 홍성’이라는
홍보 문구를 더하였다. 홍성을 옥암리 일원에 있는 옥암 생
태통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시공하면서 2017년 5월부
터 수차례에 걸친 디자인 협의를 통해 홍성군의 의견을 반영
하여 완공하게 되었다. 홍주천년기획 TF팀은 “2018년은 홍
성의 옛 지명인 홍주가 탄생한 지 천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
며 “앞으로도 자체 추진 사업은 물론 충청남도나 다른 공공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홍성군의 특색을 표현하는 이미지
를 담아내어 천년의 도시 이미지 부각에 힘을 기울일 방침”
이라고 하였다.

▼ 옥암리 생태통로



